더 나은 삶
더 큰 제주
제주사회적기업

제주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사례집

CONTENTS

Part 01
사회적기업 소개 및 제주지역 현황

사회적기업이란 06
사회적기업 성장추이 07
제주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09
사회적기업 현황 10
사회적기업 주요 연혁·제주지역 연혁 12
제주사회적기업 육성·성장 추이 14
예비사회적기업 소개 15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소개 18
사회적기업 Q&A 21

Part 02
제주지역에 뿌리내린 사회적기업 소개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이귀경 대표** 인터뷰 26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양은심 대표** 인터뷰 32
유한회사 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차용석 이사** 인터뷰 36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세왓카리타스 **일배움터 정춘진 대표** 인터뷰 41
주식회사 **엔젤지원사업단 고용석 대표** 인터뷰 47

Part 03
앞으로 기대되는 사회적기업 소개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강석수 대표** 인터뷰 54
제주희망협동조합 김홍수 이사장 인터뷰 58
유한회사 **섬이다 김종현 대표** 인터뷰 62
주식회사 **정성기업 홍경수 대표** 인터뷰 68

Part 04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는 사회적기업 소개

일자리제공형 :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에코소랑 박경숙 대표** 인터뷰 74
사회서비스형 : 주식회사 **제주이어도돌봄센터 김숙경 대표** 인터뷰 79
지역사회공헌형 : **생드르 영농조합법인 김기홍 전무** 인터뷰 84
혼합형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최영열 이사장** 인터뷰 89
기타형 : 주식회사 **제주생태관광 윤순희 대표** 인터뷰 93

Part 05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소개 및 상품홍보

1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100
2 사회복지법인 **마로원**(길직업재활센터) 102
3 유한회사 클린서비스 **보금자리** 104
4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일배움터** 106
5 유한회사 **엔젤지원사업단** 108
6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110
7 ㈜**제주생태관광** 112
8 주식회사 **혼디** 114
9 **생드르** 영농조합법인 116
10 주식회사 **서정** 118
11 사회복지법인정혜원 **에코소랑** 120
12 **더불어** 주식회사 122
13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영농조합법인 124
14 **한울** 영농조합법인 126
1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살림** 128
16 **제주물마루된장학교** 영농조합법인 130
17 주식회사 **한라환경** 132
18 주식회사 **푸른바이크쉐어링** 134
19 사회복지법인 창암복지재단 **엘린** 136
20 농업회사법인 ㈜**제주허브** 138
21 사단법인 국안연희단 **하나아트** 140
22 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연구원** 142
23 **제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 144
24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146
25 **소담제주** 영농조합법인 148
36 주식회사 **디엘에스**(DLS) 150
37 주식회사 **대유기업** 152
38 주식회사 **시와월드** 154
39 농업회사법인 ㈜**제주공방** 156
40 ㈜ **제주이어도돌봄센터** 158
41 ㈜ **해피맘하우스** 160
42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162
43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164
44 **제주희망협동조합** 166
45 주식회사 **정성기업** 168
46 유한회사 **섬이다** 170
47 **의귀마을영농조합법인** 172
48 주식회사 **꿈틀** 174

Part 06
부록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관련 연혁 178

더 나은 삶
더 큰 제주
제주사회적기업

제주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사례집

Part 01

사회적기업 소개 및 제주지역 현황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성장추이
제주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주요 연혁·제주지역 연혁
제주사회적기업 육성·성장 추이
예비사회적기업 소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소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소개
사회적기업 Q&A

사회적 기업이란

1.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2. 사회적기업의 법적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한국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항)

3. 사회적기업의 의의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조성

지속가능한 경제 · 사회통합 구현

4. 일반 기업과 차이점

사회적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5. 사회적기업의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적기업 성장 추이

1. 한국 사회적기업의 양적·질적 성장

2007년 55개의 기업 인증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기준 총 1,776개의 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활동중입니다. 2007년 2,539명의 고용을 시작으로 2017년 38,485명에 달합니다. 이중 취약계층은 23,755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취약계층에 양질의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배경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자활 등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고,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고용없는 성장 구조화·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needs)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 확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육성되었습니다.

- 최근 저성장·저고용으로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의 서비스, 그에 따른 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착한 소비·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07.7월「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의 확산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및 육성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필요한 이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근거한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건비 및 세제 지원 등의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인증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등에 있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함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경영 등을 지원하고자 함이며, 인증 절차 등을 통해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제주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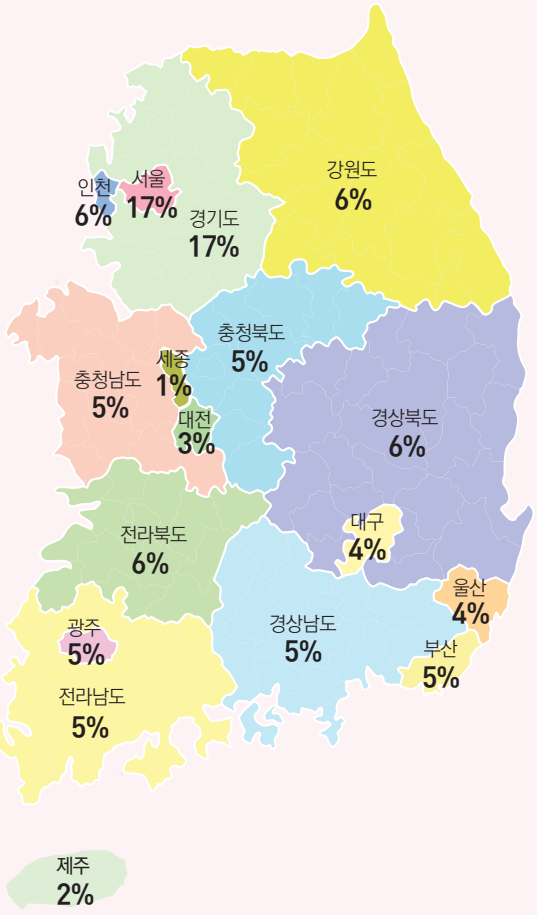
(현재 유지기업 대상)

2008년 인증기업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길직업재활센터, 유한회사 클린서비스보금자리, 사회복지법인 일배움터
2009년 인증기업	유한회사 엔젤지원사업단
2010년 인증기업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
2012년 인증기업	주식회사 혼디,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서정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에코소랑, 더불어 주식회사
2013년 인증기업	㈜제주생태관광, 백년의귤향기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제이엠누리, 유한회사 좋은세상, 한울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한라환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살림, 제주물마루된장학교 영농조합법인
2014년 인증기업	주식회사 푸른바이크쉐어링, 사회복지법인 창암복지재단 엘린, 농업회사법인 ㈜제주허브, 사단법인 국안연희단 하나아트, 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연구원, 제주콩나물 영농조합법인,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2015년 인증기업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영농조합법인, 소담제주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디엘에스(DLS), 주식회사 대유기업, 주식회사 시와월드, 농업회사법인 ㈜제주공방, ㈜제주이어도돌봄센터
2016년 인증기업	㈜해피맘하우스,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17년 인증기업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제주희망협동조합, 주식회사 정성기업, 유한회사 섬이다, 의귀마을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꿈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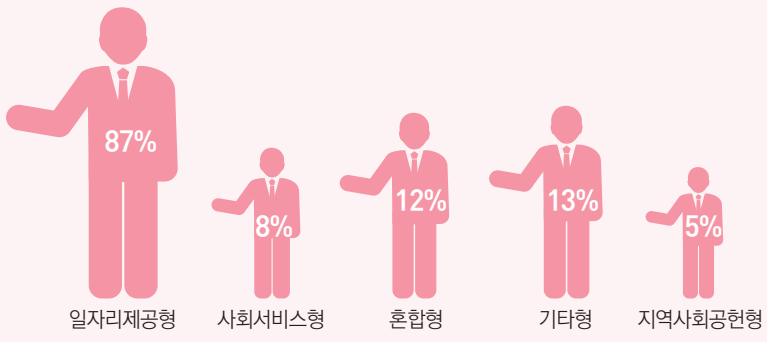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현황

전국 사회적기업 현황
(2017.0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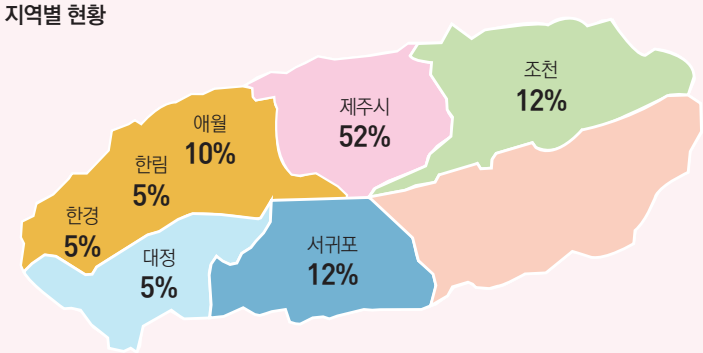
■ 전국 사회적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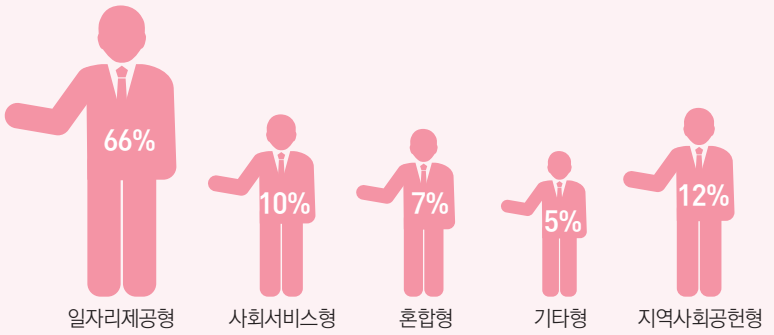
■ 전국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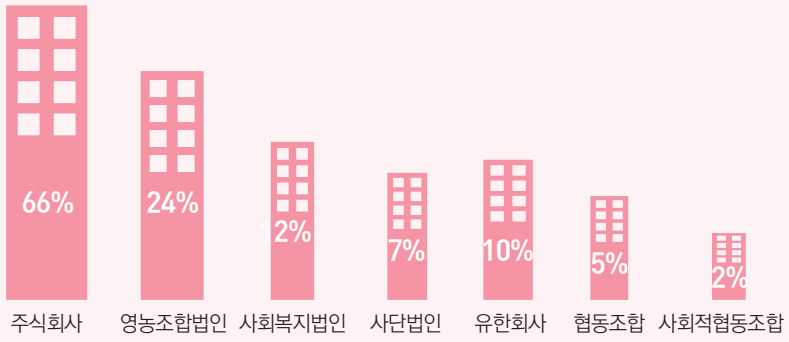
■ 제주 지역별 현황



■ 제주지역 유형별 현황



■ 제주사회적기업 조직유형별 현황



사회적기업 관련 주요 연혁

사회적기업 관련 제주지역 주요 연혁

1990년대
생산자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운동 등장,
1997년 외환위기부터 사회적기업 논의 제기,
1990년대 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등 빈곤대책 강화

2000년 초반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주체로 참여
2004년 이후 사회적일자리 사업
한계점 노출로 사회적기업 논의 시작

2005년
'사회적기업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발의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사회적기업 설립과 법적지원에 대한
필요성 검토 등)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평화의마을, 마로원, 보금자리, 일
배움터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법 5개년
기본계획 시행,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
출사업으로 전환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유럽연합(EU)의회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 채택

201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방식 확대,
'사회적기업육성법'개정으로
취약계층 범위 확대, 진흥원 설립근거 추가

2011년
'제주형 사회적기업' 4곳 지정,
도지사 지정 최초의 사례
〈생드르, 제주문화관광개발원,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서정,〉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실시

2012년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선정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실시

2013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립
〈김경환 (사)일하는사람들 대표, 강순원
한살림제주대표, 이영호 (유)클린서비
스보금자리 대표선출〉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시행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
경제기본조례 제정

2015년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4개
컨소시업구성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선정
(2017년 현재 3개 단체로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
제 시범도시 조성위한 '사
회적경제위원회'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사회
적기업활성화제주네
트워크 창립식

제주특별자치도 사
회적경제종합발전계
획 수립

2016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정

2017년
제주형 일자리창출위원회 출범,
민간·공공·사회적 일자리
집중 발굴 가동

제주사회적경제원센터 개소
(센터장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위탁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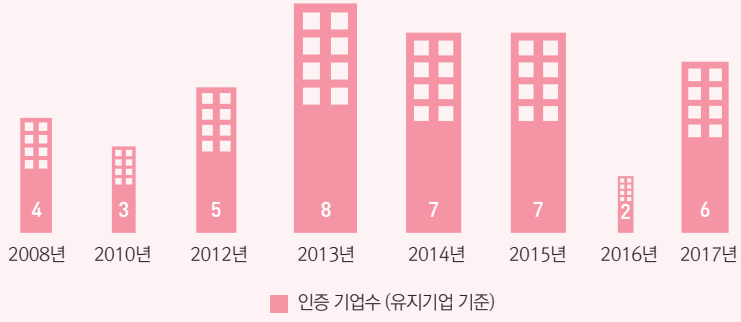
제주사회적기업 육성·성장 추이

제주지역은 2008년 4개 기업에서 시작해 2013년에는 최대 8개 기업이 인증되었고, 2014년·2015년에는 7개 기업이, 2017년에는 6개 기업이 인증 받는 등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은(2017년 11월) 42개입니다.

제주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 설립과 법적지원에 대한 필요성 검토 등)및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육성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2000년 개소),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2004년개소) 등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가사간병, 집수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분위기에 발맞춰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길직업재활센터, 유한회사 클린서비스보금자리, 사회복지법인 일배움터가 2008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이름을 알려나갔습니다.

2011년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가 도입되며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제주문화관광개발원,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서정이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제주형(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 분위기도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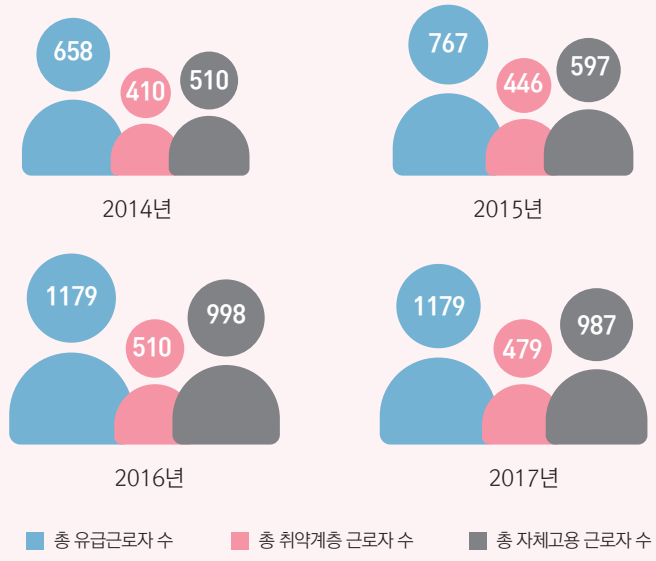


2014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는 등 사회적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점점 든든해졌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관련 전담부서의 인원을 증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형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출범하여 민간·공공·사회적 일자리를 집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에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제주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 제주(예비) 사회적기업 근로자 수 현황



예비사회적기업 소개

1. 예비 사회적기업 기업 제도 소개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정기관에 따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합니다.

현재 **제주지역에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산림청형 예비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 행복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키움학교 주식회사 지아이피씨앤디(GIP C&D) 인한복 주식회사	주식회사 나무와 사람들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①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③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이상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이 요건은「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주체	고용노동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정부부처장
근거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 부처별 운영지침 등
인증요건	· 독립된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사회적목적실현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이윤의 2/3이상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 독립된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목적 실현 ·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정관 및 규약 구비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2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소개

창업 이전, 지원사업 소개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 의지를 가진 이들, 사회적기업 관련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팀으로 선정되면, 창업 공간 및 업무 공간 등 제공, 창업비용 차등 지원,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 등에게 자문 지원 등 폭넓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에서 진행합니다.

2. 소셜벤처 경연대회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혁신적 소셜벤처 아이디어모델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입니다.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입상 시 다음 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우선 선발 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글로벌, 솔루션, 청소년, 창업아이디어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합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에 비해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에 의한 설립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과 형태를 통해 더욱 도전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들을 독려하기 위해 ASHOKA, Echoing Green, Schwab foundation 등 각종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소개 (부처형 포함)

구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주요 지원내용	최저임금수준인건비 + 사업주 사회보험료	월 200만원/250만원 한도 (인증 2명, 예비 1명) ※ 자부담 10/20/30%	· 인증 : 연1억원 · 예비 : 연5천만원 한도 ※ 자부담 10/20/30%
약정기간	지원 개시 일로부터 12개월		
지원기간	(예비) 지정기간내 2년 (인증)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내 3년(사회보험료는 4년)		
지원기간 산정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경영컨설팅	전문컨설팅 기관으로부터 회계, 시장개척, 홍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세제지원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
사회보험료지원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4년간 일부 지원, 구비서류 신청, 특별한 심사절차 없음
융자지원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함. 중소기업정책자금·미소금융 등 다양한 융자제도 활용하여 지원함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토록 판로를 지원함

주요 지원 사업 소개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 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후 지원을 받게 되며, 예비 사회적기업은 인증 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자치단체 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심사한 뒤 선정하며 정해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

기업경영의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전략기획,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당 3명까지 지원가능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지원, 유급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의 사회적기업은 2명까지 지원합니다.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식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은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1명을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경력에 따라 월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일정부분 자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 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심사한 뒤 선정하며, 다른 지원사업과 달리 일정신청기간 없이 수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구조를 갖추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등 경상적인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심사한 뒤 선정하며 정해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Q&A

Q.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는 목적 및 운영 원리 즉 사회문제의 여러 영역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소셜벤처는 벤처기업이라는 특성상 수익성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반면 사회적기업은 인증제도를 통해 고용 및 수익구조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좀 더 기업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 기업은 인증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정부나 민간, 기업 등에서 경연대회와 같은 다양한 경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근거한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건비 및 세제 지원 등의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회적기업과 자선단체·사회공헌 기업은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나 사회서비스 확대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지만, 소위 자선단체와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자선단체는 수익을 위한 비즈니스를 주요 활동으로 여기지 않고,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 모금, 프로그램 계약 등으로 단체를 운영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가능성을 유지합니다.
영리기업 중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영리활동을 하며 사회 공헌을 하는 것”과 “기업의 존재 목적이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인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정관에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존재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참고 : 한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홈페이지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인증 10주년 기념 인터뷰

우리 곁에 성큼 사회적기업,
제주경제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한 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제주에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제1호 사회적기업인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에서부터 최근에 인증을 받은 '주식회사 꿈틀', '의귀마을 영농조합법인'까지, 42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터이기도 하고, 결혼이민자의 일터이기도 하고, 고령자와 청년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총 유급근로자수가 1100여명이나 되죠.

2008년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겨났으니 어느덧 10년차를 맞습니다. 가사간병, 청소, 집수리,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화장지나 세제 등을 제조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애니메이션 개발, 카페 사업, 여행업, 음식점과 마트 사업까지 하고 있죠. 참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주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실천적 협력과 연대를 위해 만들어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사회적기업 인증 10년차를 맞아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기업의 창업 배경과 현재 진행하는 사업, 앞으로의 계획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중에는 10년차 기업도 있지만 인증 1년차 기업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유형을 보여주기 위해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인정받은 기업들도 만났습니다.

더 나은 삶
더 큰 제주
제주사회적기업

제주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사례집

Part 02

제주지역에 뿌리내린 사회적기업 소개

사회적기업 인증 10년차 기업 인터뷰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이귀경 대표** 인터뷰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양은심 대표** 인터뷰

유한회사 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차용석 이사** 인터뷰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세왓카리타스 **일배움터 정춘진 대표** 인터뷰

주식회사 **엔젤지원사업단 고용석 대표** 인터뷰

사회적기업 인증 10년차 기업소개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이귀경 대표를 만나다

제주지역 1호 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뒤 볼 새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0년
제품력과 브랜드로 승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으로 성장해

평화의마을은 제주지역의 제1호 사회적기업으로 상징성이 있는 기업이다. 중증장애인들의 일터로 2008년에 일자리 제공형으로 인증을 받았다. 제주에서 나는 엄선된 재료로 소시지를 만드는데, 기본 소시지에 생치즈를 가득 넣어 만든 자연치즈 소시지와 부추를 넣어 만든 그뤼네소시지 등 제품 구성이 다양하다. 이런 소시지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이귀경 대표가 직접 3개월여 간 유럽에서 배워온 기술이었다.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매번 교육을 보내느니 자신이 직접 배워 가르칠 생각이었다. 판로도 다양했다. 백화점에서도 팔고 홈쇼핑, 인터넷쇼핑, 최근에는 모바일쇼핑몰에서도 판다. 외국에도 수출한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펜션처럼 보였을 공장 내 사무실에서 평화의마을 이귀경 대표와의 인터뷰는 진행됐다. 매년 바뀌는 소비자 선호도와 재구매율 등을 시장조사하고 제품의 사진까지 직접 찍는다고 했다. 논문을 써도 될 만큼 연구·조사하고 장인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제품에 대해 빠삭했다.

그렇게 달려온 시간이 어느덧 10년. 이 대표는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쳐다볼 시간도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했다. 선배기업이 잘돼야 후배기업도 잘되지 않겠냐 싶은 마음으로 한다고 했다. 따라다니는 수식어만큼이나 부담감이 큰 것 같았다. 그런 이 대표가 "사회적기업이라고 계속 무거운 책임만 져야 하는가, 여유를 부려도 되는 직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행복한 직장을 꿈꾸면서도 여전히 매출을 고민하고 있을 이 대표에게 지난 10년 동안 잘 버텨줬다고 박수 쳐주고 여유도 선물해줬으면 좋겠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지 10주년입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0년이라,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목표를 세워뒀는데, 그걸 쳐다볼 여력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동안 잘 버텨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을 때였습니다. 반은 공공의 영역으로 봤지만 반은 이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기업을 들어는 봤지만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홍보하거나 수출할 때 보면 외국에서 더 인정을 해주죠. 그럴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기업은 제주지역에서 1호 사회적기업으로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되어야만 후발주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더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기업경영적 측면과 사회적가치 측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어렵진 않은지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표현 하는데, 하나 잡기도 힘든 토끼를 두 마리 다 잡으려고 하면 두 마리다 놓치지 않겠습니까. 중도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너무 힘든데도 일하는 장애인들의 얼굴 표정변화를 보면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6개부문 금메달, 국내 사회적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백화점 입점 기록."

더군다나 우리 기업은 공공구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품목이 아니죠. 물론 급식 같은, 공공구매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우리는 시장경제쪽으로 일반기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물론 OEM같은 방식으로 매출을 유지할 수도 있었죠. 대기업이나 중기업에 소시지를 대주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그때는 우리의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하게 갈수 있는 제품 대신 소시지를 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질 좋은 원료로 흔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노동집약형이어야했죠. 기계로 다 하고 포장밖에 할 게 없다면 장애인 일거리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여야 한다는 것, 재구매 기간이 짧아야 할 것 등등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기술을 배울 때, 그래도 시간은 간다는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공장의 카터기가 매일 돌아갔는데, 그 소리가 멈출 때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3개월간 고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배운 기술로 바로 설비를 갖춰놓고 가내수공업 정도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갔을 때 메쯔거라이(Metzgerei)에 갔는데, 우리 같으면 정육점 더하기 육가공업가게입니다. 바로바로 소시지 만드는 걸 보고 시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려웠죠. 그렇게 어려울 줄 알았다면 시도도 안했을 것입니다.

> “소시지 가격 내릴 생각 없다, 제품 하나는 자신있다. OEM으로 쉽게 유지해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만의 브랜드를 지켜나가는 게 사명.”

소시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소시지라는 게 일반 과자보다는 더 신중하게 구매하는 품목입니다.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며 구매하는 품목입니다. 그러다보니 브랜드가 중요하죠. 마트에 가면 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깔려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기업처럼 작은 브랜드 제품은 들어갈 틈이 없는 게 현실이죠.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생산한다? 어림없었죠. 기본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질이 떨어질 것이고 비위생적일 것이라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편견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해썹과 같은 인증을 받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유럽에 가서 6개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온 것입니다. 이제는 소시지에 들어가는 채소들도 직접 재배해 사용합니다.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외국 나가서 봐도 우리 제품이 제일 비싸지만 가격을 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만큼 제품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홈쇼핑이나 백화점 등 판로가 다양합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쇼핑으로 30분 만에 6천만원이 팔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수료 등이 빠지죠. 외국 가서 봐도 우리 제품이 제일 비싼데 홈쇼핑에서는 가격도 많이 내려서 판매해야 했으니…, 나중에는 도네이션 방송 정도로만 했습니다.

백화점은 국내 사회적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입점한 기록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주일 매출이 2천 만원 정도였으니까요. 백화점 측에서도 평

화의마을의 매출을 보니 되겠다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홍콩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수출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데, 국내 시장이 주춤할 때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시장과 다르게 돌아가죠. 판로를 위해서는 시장을 몇 개는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외국수출은 장애인 직원들에게 내가 만든 제품이 세계적으로 팔린다는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한국적인 맛인 떡갈비 소시지를 가져가서 팔았습니다. 이게 팔리겠나 싶었죠. 소시지가 달았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소시지가 달아서 더 좋아했습니다. 물론 이 또한 그냥 이뤄낸 게 아니었습니다. 3~4년전 부터 꾸준히 박람회도 참석하고, 행사도 하니까 된 것이죠. 단번에 되는 일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제품개발을 꾸준히 하는 것 같은데, 힘들지 않았나요?

신제품개발은 거의 제가 다 합니다. 사진도 직접 찍고, 마케팅도, 영업도 하죠. 대기업은 딱 필요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고용할 수 있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능력으로만, 하나의 이해관계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서로 의견을 모아 공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입맛도 시장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2년 후의 먹거리를 생각하죠. 언뜻 보기에는 사회적기업이 느슨해 보일 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은 대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후발주자여도 자본이 있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작은 기업은 항상 앞서 나가서 생각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앞서나가서도 안되지만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인 직원이 26명입니다. 하루에 500-700만원을 벌어야 하죠. 당연히 힘듭니다. 돈을 버는데도 불행한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외국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느긋한데 우린 왜 이렇게 아등바등살까하고요. 그때 외국에서 참 가고 싶었던 가게가 있었는데 항상 갈 때마다 문이 닫혀있는 겁니다. 일하다 중간에, 점심시간에 걸어서 갔다 왔는데, 닫혀있었죠. 안되겠다 싶어서 일을 끝내고 가봤는데 그때도 닫혀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뭐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문을 닫고, 퇴근시간이라서 닫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린 노후에 대한 대비가 유럽국가보다 불안하니까 여유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불행해야 하는지, 우리는 왜 무엇인가를 책임지는 입장이어야만 하는지…. 여유를 부려도 되는 직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가치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10년차 기업소개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양은심 대표를 만나다

세탁기 10대로 겁 없이 시작

어느덧 사회적기업 10년차 기업 마로원

굵고 길게 쭉 뻗어나간다는 '마로'의 뜻처럼 제주사회에 뿌리내린 시간
세탁업에서 제빵 사업까지 확장해, 천연발효 치아바타빵 인기 몰이 중

2008년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마로원은 어느덧 인증 10년차로 접어든 중견기업이다. 세탁업 부터 물티슈 사업, 종이컵 제조사업까지 한다. 제주에서 재배된 보리를 이용해 천연발효빵을 만드는 제빵 사업도 제법 인기몰이 중이다.

마로원은 한림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왔다. 세탁업을 하는 일터라고는 보이지 않는 외관과 주변 풍경이 주는 첫 느낌이 인상적이었다. 제주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었고, 그만큼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다. 그렇게 기대감을 품고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양은심 대표를 만났다. 그런데 양 대표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지 10주년이라고 말해주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벌써 그렇게 됐구나, 하는 탄식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묻어있는 것 같았다. 그런 양 대표는 인터뷰 바로 전에도 누군가에게 사회적기업을 해보라고 권유했다고 했다. 국가적 관심도나 사회적 환경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으니 할 만하지 않겠냐고, 도전해보라고.

키 큰 나무들이 심어져있고 연못과 그네가 있는 뒷마당에서 사진 촬영은 이뤄졌다. 앞에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숨은 공간이었다. 마치 오래된 정원을 연상케 했다. 고목나무의 굵고 길게 쭉 뻗은 뿌리, '으뜸'이라는 뜻을 지닌 순 우리말이 '마로'였다. 그렇게 비교해보니 바로 이 뒷마당의 정원이 마로원이라는 이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마로라는 이름처럼 굵고 길게 쭉 뻗어나가는 기업이 되길 기원한다.

어느덧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지 10주년입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벌써 10년이라니,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업을 하고 있다보니 챙길 새가 없었죠. 그 당시 사회복지 시설로서도 충분한 기관이었지만 사회적기업을 하자고 마음을 먹은 데에는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비장애인들이 만든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사회적으로도 호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설명해도 잘 몰랐지만 지금은 도민들도 좋은 기업이라는 인상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을 해왔다니 나름대로 뿌듯합니다.

당시 도지사의 공약 사항을 도와주었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 당시 도지사가 되기 전 후보 때부터 사회복지정책 등을 도와주었는데, 사회적기업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제주지역에 많이 알려졌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많이 창출했죠. 그런데 조금 무리한 공약을 펼쳤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회적기업을 100군데 육성하자는 공약을 했는데, 과도한 목표였지만 결국에는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합해 목표치를 채우긴 했습니다. 약속을 하면 꼭 해내야 하는 성격이다보니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다 합해도 70여 군데 라니…, 물론 여러 문제점도 있었을 테지만, 돌이켜보면 대단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받을 생각으로 시작하면 안돼, 오늘도 사회적기업 도전해보라고 권유해.

처음 어떤 사업을 먼저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사업은 세탁업이었습니다. 음식점의 천 물수건을 세탁하는 것이었죠. 위험하지 않고 세탁기 10대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겁 없이 덤빈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세탁기로는 찌든 때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 세탁기를 들여다 놓았는데 그래도 세탁방법이 문제였는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탁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세탁업자들도 노하우를 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솥에도 삶아보고 소위 양잿물(빨래하는데 쓰이는 수산화 나트륨을 일컬음)도 넣어서도 해봤죠.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한 화학전문가의 조언으로 세탁 노하우를 전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음식점에서 천물수건 대신 물티슈를 쓰겠다고 하니 물티슈사업도 하게 된 것입니다.

판로확보는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요?

그야말로 발로 뛰었습니다. 호텔 이불 등의 세탁물도 발로 뛰어 거래처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때 장애인분들과 같이 다녔습니다. 업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싶었습니다. 장애인 분들도 같이 다니다보니 거래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빵은 한 10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 먹어본 발효종 빵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일반 빵은 흔하고 판매점도 많으니 다른 종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효종 빵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난 재료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보리를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치아바타라는 빵이 잘 나갑니다. 많이 알려져서 나름 괜찮은 카페에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카페나 저지리 예술인 마을 내 에 있는 카페에도 들어갑니다. (치아바타는 인공첨가물

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재료만을 사용해 만든 이탈리아식 빵이다.) 건강한 빵인 만큼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카페에서는 대체로 이 빵으로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빵만 먹는 분도 있습니다. 직접 가게를 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임대료 등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크든 작든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 텐데요.

빵을 수출해보려고 작년에도 직원들과 일본 견학을 다녀왔고 국내에서 유명한 우수상품 박람회에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빵 만한데가 없더군요. 아직 구상이긴 하지만 동남아시아나 그 외 지역으로 수출을 해볼 생각입니다. 내수 시장과 외국 시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판로를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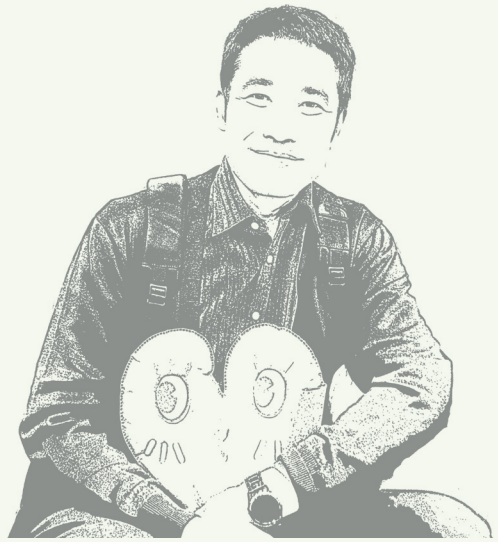
인터뷰 오기 전에도 누군가에게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일단은 선배기업들이 초창기부터 길을 잘 닦아왔기 때문에, 우리처럼 어려운 길을 가진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할 거냐, 아이템은 어떤 것이냐 중요합니다. 국내외 모두 인정받는 상품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면 좋겠습니다. 이젠 원재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즙 짜서 파는 방식의 안일한 생각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도 누구보다 예쁘게 해야 하죠.

인건비 지원 받을 생각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가치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템이 있다면 일단 많은 상담을 받아보고 상품성이나 시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선배기업들처럼 어려운길 아닐 것, 이젠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사회적기업 인증 10년차 기업소개

유한회사 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차용석 이사를 만나다



청소가 아닌 행복을 파는 10년차 사회적기업
유한회사 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사회적기업 정관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나
이영호 대표는 돈에 목적 없는 사람, 소신이 10년동안 변하지 않더라

유한회사 클린서비스 보금자리는 2008년도에 인증을 받아 이제 10년차로 접어드는 사회적기업이다. 일자리제공형으로 아파트나 주택, 준공건물, 전시물, 대리석연마 등의 청소를 하며, 저주소 청소나 방역소독 등의 일도 한다. 자활기업이기도 한 보금자리는 베스트 자활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외벽 타는 여성, 김영미 씨가 자활 명장으로 뽑혔을 만큼 명품기업이다. 일에 대한 자부심은 기업 곳곳에서 느껴졌다.

'청소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라는 소개 글이 인상적이었는데, 청소가 아니라 행복을 파는 기업이라고 하니 더 그랬다. 청소에 대한 인식이 저평가 되고 있는 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었다.

보금자리 차용석 이사와의 인터뷰는 보금자리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사실 이영호 대표는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영호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영호 대표와 10년 지기인 차용석 이사의 이야기 또한 놓칠 수 없었다. 젊은 시절을 보금자리와 자활기업에서,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보낸 차용석 이사가 지금 시대에 와 닿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인터뷰를 흔쾌히 허락한 차용석 이사와의 이야기는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이어졌다. 10년 전,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법무사를 찾아갔던 일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정관을 수정해야 했는데, 투자자 상관없이 1인 1표라는 건 유한회사 정관이 아니라고 했다고.

여느 다른 기업이었다면 지원금으로 사업계획을 짰겠지만 보금자리는 처음 받은 지원금으로 직원들을 데리고 3개월 동안 교육을 했다고 했다. 지난 10년 동안 분명 쉽게 돈을 벌수 있었던 주변의 유혹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돈을 쫓아가본 적이 없다고. 그게 다 이영호 대표의 변하지 않는 가치였고 그런 가치들이 지켜졌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더 크게 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규모로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고.

차용석 이사는 본인도 모르게 인터뷰 내내 이영호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난 10년의 시간이 차용석 이사의 말속에 고스란히 묻어있었다. 열여섯살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막역한 사이로 보였다.

그동안 쌓아 올려놓은 공력 때문에 대표의 부재 속에서도 보금자리는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는 말로 인터뷰는 끝이 났다. 시원시원한 입담이었지만 이영호 대표에 대한 걱정이 한 켠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았다. 건강이 회복돼 하루빨리 보금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전해졌다. 다음엔 건강한 모습의 이영호 대표와 같이 인터뷰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보금자리는 자활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는 곳이죠. 사회적기업법이 발의될 때부터 사회적기업에대한 인식이 확고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적기업을 잘 몰랐죠. 법무사가 정관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사회적기업 되려면 정관을 수정해야 했는데, 투자자 상관없이 1인 1표라니, 유한회사의 정관으로는 맞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지난 10년동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경쟁이 심한 시장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했죠. 저희는 시장가보다 오히려 더 높게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대신 품질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죠. 내부 직원교육도 강조했습니다. 임직원들을 데리고 3개월이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생서비스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도 받았죠. 지원금을 소득창출을 위해 쓴 게 아니라 교육에 쏟은 것입니다. 다른 기업 같았으면 개발비 같은 곳에 써서 매출을 올렸겠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이미 자활기업이었지만 사회적기업이 되면서 관공서 등의 계약을 따는 데는 편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믿고 맡겨주는 느낌이 듭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도,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3년 전쯤 제주지역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건이 크게 터진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던 때였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부정적이었던 시선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청소할 때의 복장 등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원을 받고 있으니 가격을 할인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여전합니다. 취약계층 고용을 위해 기업을 어렵게 존속시키고 있는데, 그런 취지들이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우선으로 사업을 합니다. 되도록 일용직은 쓰지 않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걸 알면서도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잣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자리가 공석인데 매출이나 경영 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임금을 주고, 가끔 인센티브도 줄 수 있을 정도로 법니다. 업종 자체가 서비스업이다보니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러다보니 사람을 우선합니다. 그 덕분인지 근속 연수가 꽤 깁니다.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 생긴 거래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도 자가발전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달 전에 스케줄이 꽉 잡혀있을 정도죠. 다른 업종도 그렇겠지만 청소업 시장에서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일당이 11만원 정도이니 일당제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정규직을 고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단가와도 맞지 않죠. 그럼에도 정규직 고용을 우선하려는 건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어려움없이 돌아가는건 이영호 대표가 보여준 무식한(!) 리더십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밝히지 않았고, 돈을 벌자는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10년 동안 한결 같이 그러셨습니다. 분명 중간 중간에 돈을 쉽게 벌수 있었던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용역업을 확대할 수도 있었죠. 그러면 돈은 벌지 모르지만 고용은 불안해지겠죠. 이영호 대표는 그러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기업의 규모는 커지지 않았

지만 10년간 꾸준히 사업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건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창업하고 3년 동안 밤 10시 이전에 퇴근한적 없어. 대표의 공백에도 유지 가능했던 건 직원들 덕분."

이영호 대표와 막역하신 것 같은데, 의견이 맞지 않을 땐 어땠는지요.

2008년쯤에 이영호 대표가 창업을 하자고 했고, 그 이후 3년 동안 밤 10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하느라 그랬습니다. 서로간의 가치관이 많이 달랐던 점도 있었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밤에 앉아서 기업의 안정화와 성공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호 대표는 옆에서 지켜봤지만 가치관을 잃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무식할 정도라고 표현 할 만큼이죠. 소신이 강한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영호 대표는 자신의 소신을 지켰습니다. 용역사업은 하지 말자, 일용직은 되도록 쓰지 말자, 여기 사람을 우선 한다 등이 있죠. 월급 안 받아도 좋다고 할만큼 헌신적인 자세가 있었기에 지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금자리가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 지켜갈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것도 사람이었고, 가장 좋아했던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팀장급이 4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일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주가 됐고 지금은 없어선 안될 주역들이 됐습니다. 이영호 대표가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 네 분이 이 회사를 끌고 간 것입니다. 어느덧 입사 10년차입니다. 애착심도 대단하죠. 공백이 길어졌지만 차질이 생기지도 않았고 매출도 꾸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영호 대표님도 신경을 많이 안 썼을 겁니다. 믿고 맡겨준 것 같습니다.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다. 안정적인 직장보다 도전하는 일이 체질."

사회적기업 10년차입니다. 아직 젊어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불안하고, 그렇다고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닙니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30대를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과 관련한 일을 꾸준히 했던 이유는, 생각해보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틀 안에서 만들어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사회적기업이든 자활기업이든 새로운 형식으로 도전해야 하는 부분이 컸고, 그 과정에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했는데도, 재미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관공서나 대기업에서 일했다면 기업의 부속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을 했겠죠. 기계처럼. 굳이 안정적인 직장이 좋다면 모르겠지만, 일할 땐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기가 더 재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10년차 기업소개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일배움터 정춘진 대표를 만나다

사회적기업 10년차 여전한 현역기업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일배움터

최근 장애인바리스타카페 제주도청점까지 오픈하며 실력발휘
장애인도 직장다니는 평범한 삶 누려야 사회적 자존감 높아져

2008년도에 인증을 받은 일배움터는 직업재활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적응훈련과 사회적응 훈련을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원예 사업과 농산물 사업, 카페사업을 하고 있다. 하나의 사업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시대에 장애인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일배움터는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소속으로, 천주교 제주교구가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법인의 직업재활시설이다. 제주황새왓카리타스는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2014년도에 분리 설립됐다.

일배움터의 정춘진 대표는 여전히 지인들에게 영업을 한다고 했다. 10년차로 접어든 안정적인 기업의 대표처럼 보이지 않았다. 정 대표가 유독 강조한 부분은 장애인들에게 직장이 갖는 의미였다.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고, 매달 월급을 저축하며 미래를 꿈꾸는 삶이 비장애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장애인들에겐 그렇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일배움터가 왜 분야가 다른 사업들을 시도하는지 알 것 같았다.

인터뷰는 장애인 고용에서부터 제주살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격이 없이 오갔다. 제주가 아니었다면 네팔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했고,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출퇴근하는 일이 힘들지 않은 서울사람인데 주변사람들이 자꾸 제주사람 같다고 말한다며 웃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내공이 있었다. 아마도 그런 매력은 장애인이나 장애인 부모님들과 지내면서 생긴 소탈함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인터뷰 내내 정 대표가 제주사회에 잘 적응해나가듯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잘 물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일배움터가 그런 역할을 잘해내 줄 거란 믿음도 커졌다. 장애인들에게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선물해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

“
2014년
고용노동부장관상 ·
보건복지부장관상,
2017년
국무총리상까지 수상
”

일배움터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현재 도자기화분과 꽃다발, 축하근조화한 등 전국으로 배송하는 원예사업과 제주산 고사리와 표고버섯 등 농산물을 건조·가공해 만드는 농산물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플로베][I got everything]이라는 청년장애인바리스타 카페도 운영하고 있죠. 전국의 여느 장애인카페를 가도 장애인들이 직접 바리스타로 일하는 곳은 흔하지 않은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로만 보면 농산물사업 분야가 제일 크지만, 꾸준히 바쁜 건 도자기와 원예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문을 연 플라워카페 [플로베]는 매출이 좀 주춤한 편이지만 최근에 연 제주도청 카페는 순항중입니다. 카페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데, 장애특성상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다른 패턴의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을 쉽게 접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업 분야가 다양합니다.
다른 분야의 사업들을 챙겨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각각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열정과 현신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을 가치를 공유하는데 씁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할까, 왜 여기서 왜 이 일을 할까, 서로 질문하며 얘기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남들이 당신은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나눕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 공유가 곧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들이 어떻게 다양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비장애인과 노동효율성으로만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비장애인의 경우 한 사람의 능력이 30%라고 한다면, 세 사람이 모이면 어느정도 100%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3명을 모아도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성이나 효율성으로만 따져 기여도에 따라 임금을 줘야 한다면 장애인 일터에서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걸 다 그렇게 봐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업을 다양하게 하는 데에는 이런 고민과 더불어 취업의 선택을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장애유형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한 명 한 명이 다 특성이 다릅니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
농산물 · 원예 ·
카페사업까지,
청년장애인들의
취업선택
다양해지도록 노력
”

장애인들에게 직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일이라는 것은 임금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해나가는 개념도 있지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평범한 삶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얻는 게 힘이 듭니다. 평범한 삶이 평범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 자체가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은 일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자존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당연한 최소한의 권리이지만 장애인 기업의 현실에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주는 것만으로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일터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 10년차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경영적 측면과 사회적가치 측면 둘 다 생각해야 하는데 균형을 맞추는 일이 어렵지 않은가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미션도 기업적 매출도 챙겨야 합니다. 우리도 당장 장애인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간극 사이에서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게 힘든

일이죠. 어쩌면 그 자체가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걸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죠. 사회적기업이 이 두 가지, 어쩌면 이질적인 두 개의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사회적기업이 등장한 사회적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을 기업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을 때였죠.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해결해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업경영은 절박해야 합니다. 고 정주영 사장의 말처럼 절벽에 나무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에게 주는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을 바라고 한다면 절박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걸 발판으로 일어나서 자립하라는 것이지 기대라는 얘기가 아닐 것 입니다. 의존하면 안됩니다. 일반기업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일반기업은 더 절박할 것입니다. 이젠 사회적기업 제품이니까 사줘야지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일반기업과 같은 시장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기업 경영만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사회적기업가에게는 사회적 미션과 철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지향점이 있어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일반기업도 버티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적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는다는 것은 창업 붐의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업

에 대한 로망이 있겠죠.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니까 시작하는 것 아닐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사이의 경계가 이미 무너졌다고 봅니다. 앨런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도 사회적기업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업에 뜻이 있다면 굳이 사회적기업가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회적기업을 해야 하고 이 어려운 걸 하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까 생각해보면 사회적 변화를 꾀하고 사회적 문제나 이슈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상반기에 장애인직원 부모님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일명 선진지 견학이었죠.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님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스스로 일정을 짜게 했습니다. 물론 실무는 도와주었습니다. 대화방도 만들어 직원들과 소통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있어났습니다. 시끄러운 일도 있었죠. 그런 민주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가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등 장애

인 부모님들의 고민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서로를 이해해주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젠 대화방 기능을 살려 실시간으로, 자녀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올려주기도 합니다. 지난 추석연휴 때에는 명절 선물 포장을 부모님들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직원들이 더 고생했을 것이죠. 부모님들도 일배움터 가서 일 해봤더니 힘들더라 하면서 사무실 직원들을 이해해주는 폭이 커졌습니다. 덕분에 추석명절을 힘들지 않게 넘기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작은 소통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활성화시켜 소통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10년차 기업소개

유한회사 엔젤지원사업단 고용석 대표를 만나다

지역에서 봉사해보자는 마음에서 시작

앞으로 시니어 토탈매장이 꿈, 엔젤지원사업단

직접 고용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규직율 올리는 게 목표
어르신 부양부담은 우리 사회가 안고가야 해

유한회사 엔젤지원사업단은 방문요양 · 방문목욕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취약계층 이동지원 사업, 사랑나눔 푸드마켓 이용 대행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회적기업이다. 2009년도에 사회적기업 인증 문턱을 넘었으니 어느덧 9년차에 접어들었다.

엔젤지원사업단 고용석 대표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차림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보기에도 뚝심이 느껴지는 인상이었다. 그는 대학을 다니던 시절, 제주시에 봉사활동을 갈 때마다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돌이켜보니 그것이 사회복지업에 발을 담그게 된 계기였던 것 같다고 했다. 지금도 고용석 대표는 도심지에 편중되어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역 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지역밀착형 복지체계를 갖추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고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챙겨야 할 게 더 많아진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지난 9년간의 추억을 얘기하는 얼굴이 시원한 표정이었다.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규직율을 올리는 게 목표라는 고 대표. 그의 바람대로 복지영역의 지역 간 차별이 해소되고 종사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한다.

사회적기업 9년차입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그때 생각이 나십니까.

2009년 2010년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도 자주바뀌었고, 이와 관련된 정책도, 지원책도 자주 바뀌었죠. 우리는 사회적기업이 되고 나서 2010년에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신청하여 순조롭게 출발하였는데, 이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노인장기 신청사업은 일자리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야, 11개월 동안 받은 지원금을 전부 환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했지만, 정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자리지원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행정이 미흡한 때였으니 그랬다는 걸 지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도 기업의 목표나 핵심적인 가치는 뚜렷했습니까.

정관상에 쓰인 좋은 말들이 많지만 처음의 목표는 지역에 종합복지관 수준의 기관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외곽지에서는 복지시설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분야부터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지역에 대한 생각을, 대학생 때부터 했습니다. 제주시 중심지에 있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왜 제주시까지 가서 봉사를 해야 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도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엔젤지원사업단을 제주시가 아니라 조천읍, 동쪽지역에 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읍면동지역의 어르신들은 점점 수요가 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를 해주고 싶어도 간병 인력 자체가 부족한 실정

> “
> 2016. 2017.
>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정
> 청구그린기관으로 뽑혀
> ”

이니 사각지대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접점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미션이 궁금합니다.

9년 동안 사업을 해보다 보니, 지금 단계에서의 사회적미션은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말고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고령사회임에도 우리 사회는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요양보호사님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도 중요한 미션중 하나입니다. 단기간 근무가 많은 요양보호사 직업군은 고정적인 일거리가 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25%정도인 정규직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9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나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엔젤지원사업단이 사회적기업을 유지해 지금껏 사업을 하다보니, 방문요양평가 최우수 기관이 되었고, 2016년 2017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청구그린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청구그린기관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청구를 잘하는 우수기관을 선정해 모델화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의 청정도를 올리기 위해 지

원하는 제도임.) 청렴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기관을 모델로 삼고 사회적기업이나 요양보호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기관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보호자나 다름없어"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우선 순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는 서비스 대상자분들에게 보호자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종사자분들이 없다면 그 가족들에게 부양부담이 크게 돌아가게 되죠. 부양부담은 단순히 가족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일반적인 직장처럼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는 게 어렵습니다. 관리하고 있던 어르신이 사망하거나 요양원 등으로 옮겨갈 경우 일거리를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전부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 홈케어와 시니어 토탈매장 등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르신 중 나홀로 세대나 부부 세대가 있잖아요. 그 주택을 담보로 공동 유료 홈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주택은 젊은 세대에게 임대해주고 그 주택을 관리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어르신들의 주택을 이용한 주택연금이나, LH의 기존주택 매입 · 전세 임대주택 사업 등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시설을 만들어 머물게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즐기게 하고 공동 유료홈에서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토탈매장도 맥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한 건물에 어르신들을 위한 카페와 노인물품 판매점, 여가관련 상품점, 의료 용품점 등이 입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지역에 들어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업들을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어르신 거리도 있지만, 제주지역에서는 도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재정적 지원만을 보고 시작한다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마인드가 없이 뛰어들면 지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반납하려고 한 적이 많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사업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고, 조사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신경 쓸 일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적가치가 확고하지 않다면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특성상 사회적가치도 실현해야 하지만 매출이나 고용 등 경영부분도 신경써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사회가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기업되면 챙길 것 더 많아진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더 나은 삶
더 큰 제주
제주사회적기업

Part 03

앞으로 기대되는 사회적기업 소개

사회적기업 인증 1년차 기업 인터뷰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강석수 대표** 인터뷰

제주희망협동조합 김홍수 이사장 인터뷰

유한회사 **섬이다 김종현 대표** 인터뷰

주식회사 **정성기업 홍경수 대표** 인터뷰

사회적기업 인증 1년차 기업소개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강석수 대표를 만나다

폐업 위기의 기업에서 유럽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사회적기업 인증 1년차, 직원들과 손발 맞출 시간 없이 사업 뛰어들어
착한 생산 · 착한 유통 · 착한 판매가 제주다의 미션

영농조합법인인 제주다는 조릿대차와 귤피차, 꾸지뽕차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다. 종류별로 침출차 뿐만아니라 액상차도 있다. 원료들이 다 제주에서 생산되고 제주적인 것들이다. 무농약으로 재배한 원료를 가마솥에서 정성스럽게 덖어 전통수제차를 생산한다.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강석수 대표는 오전에는 초췌하니 오후에 인터뷰를 하자고 했다. 농담인 줄 알면서도 진담처럼 느껴졌다. 요즘 강 대표는 마트 오픈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 때문이었다. 강 대표가 어떻게 제주다를 인수하게 됐는지 궁금해 물었을 때 그저 일을 좀 도와주려고, 제주다에 들어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폐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업을, 문 닫는다고 하니까 인수했다며 또 농담 같은 진담을 했다.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싶었는데, 대답이 너무 명쾌해 놀라웠다.

영농조합법인 제주다의 강석수 대표는 자활기업으로 설립된 뒤 힘든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 기로에 서 있던 기업을 인수했다. 예비 사회적기업 기간이 만료되어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럴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상태인 기업이었다. 사람들은 차보다 커피를 더 좋아했고, 더 많이 마셨다. 한때는 사양산업으로까지 내몰렸던 다류 사업을 했던 제주다도 그런 흐름에서 버텨내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강 대표가 인수한 뒤 제주다는 180도 다르게 변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제주도내외 중대형 매장에 입점 시키는 것도 모자라 유럽과 홍콩 수출까지 뚫었다. 최근에는 마트까지 열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2~3년 만에 일궈진, 강 대표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뤄낸 성과들이었다.

인터뷰 내내 내심 뭔가 거창한 스토리가 있길 바랐지만, 강 대표는 계속 순수하게 사업을 시작했고 열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간 것 밖에 없다는 말투였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큰 일들을 해냈는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런 소탈한 모습의 강 대표가 제주다의 역사를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만들지 벌써부터 궁금했다. 이런 제주다의 위기 극복 모델이 다른 기업에게도 자극제가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적기업이 된지 1년차입니다.
인증 절차를 밟는 과정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인증 조건을 갖추는 게 어려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든 자활기업이든, 창업기업이든 초기에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데, 현금 융통이 어려운데,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현금 여유가 있어야 하더군요. 자부담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받았다가는 지원금을 받아놓고도 애를 먹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인력 채용도 제한이 많아서 보완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커피는 이제
> 과포화산업,
> 경제성장과 맞물리면
> 차를 더 마시게 될 것

폐업 위기의 기업이었습니다. 선뜻 인수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문 닫는다고 하니 인수했습니다. 그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걸로 결합한 것이죠. 기존에 있던 자활 분들이 3명 있었는데, 한계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합하자마자 그 분들은 자활로 돌아갔죠. 그러고 나서 폐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미 구축되어있는 인프라도 있으니 폐업보다는 다시 해보자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제주도내외 뿐만아니라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요?

홍콩수출을 뚫기까지, 우리는 무식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 다류를 유통 하는 기업을 인터넷으로 찾았죠. 한 400곳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각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어떤 포지션인지 자료를 찾게 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를 50곳으로 지역별로 추렸습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된 홍보 메일을 보냈죠. 그때 홍콩, 독일, 미국 등 다섯 군데에서 실제로 연락이 왔

습니다. 그 중 연결이 된 곳은 수출을 하고 있고 3개 기업은 리뉴얼 등을 위해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나 말레이시아에서도 수입 의사를 밝혔는데, 그 나라의 경제성장이나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받으려면 현금 여유가 있어야 하더라"

1차 산업. 한때는 사양산업이라고 까지 했는데, 전망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변화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지는 패턴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 녹차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가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도 하는 등 패턴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차산업이 커피산업에 밀리면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결합하면서 틈새시장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원료에 의해 다양한 차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커피는 너무 많습니다. 이미 과포화입니다. 앞으로 커피보다는 좀더 다른 먹거리를 찾을 것이고, 차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차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과 맞물려 발전합니다. 흔히 차를 중국하고 일본에서만 소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차 소비량을 보더라도 싱가포르와 캐나다가 1,2위를 차지하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일수록, 무상의료가 잘 갖춰지고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높은 나라일수록 다류를 선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다의 사회적 미션,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같이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옛날부터 고민이었던 게 경제 구조에서의 평등이었습니다. 이게 형성되려면 생산뿐만아니라 제조와 판매까지 다 평등해져야 합니다. 생산에서만 공평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좋은 원료로 만들어놓고도 유통 판매로까지 이어지지 못하죠. 제조와 유통에서 뒤틀려지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산도 착하게, 유통도 착하게, 판매도 착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직접 제조해보니 유통과 판매까지 착하게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까지 열게 된 것입니다.

제주다에 오기 전까지 노조 활동도 했었고, 행복나눔공동체도 만들었고, 식당도 운영 했었고, 귀농도 했었습니다. 텃밭 250평한데 졌죠. 친환경농사를 했는데, 풀들을 이기지 못하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다른 길 들이었지만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트를 엽니다. 하나의 물류 유통센터, 거점센터가 될 것입니다. 일단 6차 융복합기업들의 제품들이 들어오죠. 사회적기업쪽은 제조업이 많지 않아서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작

은 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마트 입점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막상 들어간다고 해도 관리도 어렵죠. 우리가 6차 인증 기업의 물건을 다 모아서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트에서도 팔고 직영쇼핑몰에서도 팔도록 할 겁니다. 영세한 기업의 제품들은 관리를 잘 못하면 마트에서 퇴출당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트 입점 된 제품들을 관리도 할 것입니다. 이걸 누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한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모여서 한 겁니다. 아직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6차 융복합기업 · 사회적 기업 등 제품 판매 할 마트 기업들이 직접 만들어"

사회적기업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사실상 사업개발비 1억을 신청했을 때 자부담이 5천 만원쯤 되더군요.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수익을 누적시켜서 자부담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추가 출자를 더 해야 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초기 사회적기업에게는 큰 돈이 필요한데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융지원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1년차 기업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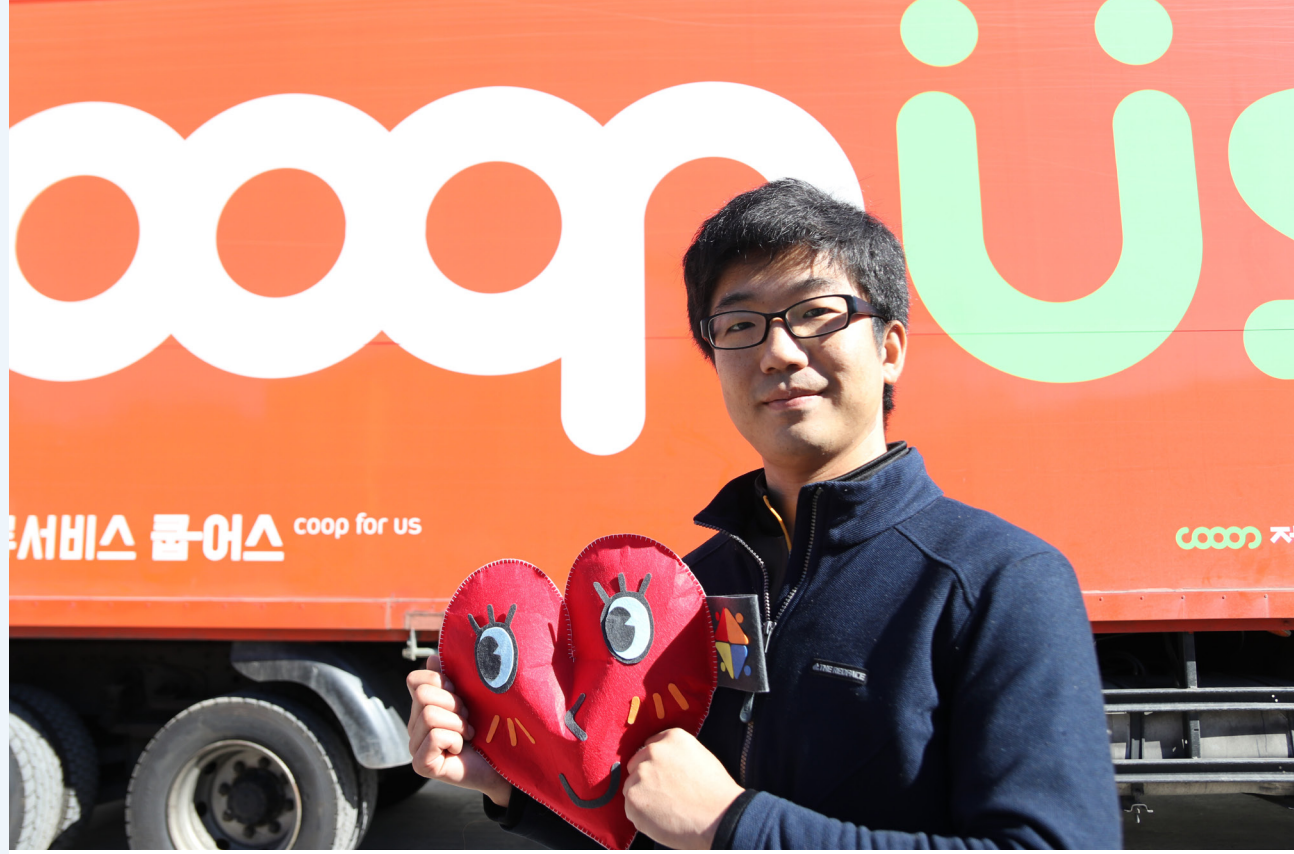
제주희망협동조합 김홍수 이사장을 만나다

임직원 대다수가 청년, 굵직굵직한 사업 도맡고 있는
준비된 기업 제주희망협동조합

퇴직금 들고 아무생각 없이 시작, 사회적미션 없으면 일반 창업이 낫다는 조언도 사회적기업 대표 양성교육만 있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주목해야

희망협동조합은 2011년도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수눌음 배송사업단으로 시작해 2017년도에 사회적기업이 됐다. 인증1년차인 기업이라고 하기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화려했다. 제주전역 경로당 양곡배송 업체로 선정, 제주전역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물건배송 및 매장 배송 등 운송 업체 선정, 제주시·서귀포시 등 보건소 영양플러스 배송 업체로 선정 돼 제주전역을 돌고 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다. 내공이 만만치 않아보였다.

그러나 막상 만난 제주희망협동조합 임직원들은 생각보다 젊었다. 인터뷰 한 김홍수 이사장은물론 기업의 임직원 대부분이 청년층이었다. 그러니 사회적기업이 되기까지, 쉽지 않았을 그 길에서 어떻게 희망협동조합이 살아남았는지 궁금했다. 청년 취업이 사회적 문제인 요즘, 김 이사장은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많아보였다. 김 이사장은 인증 절차보다도 인증 요건 유지가 더 어려운 게 사회적기업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일반 창업이 나을 것이라고도 했다. 몸으로 하는 일인지라 조합원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다른 사업들도 구상하고 있다는걸 보면 지금 사업이 잘된다고 안주할 생각도 없어보였다. 직원들이 다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그 말이 깊은 고민에서 나온 얘기라는 게 느껴졌다. 인증 1년차라고 하기엔 준비된 사회적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희망협동조합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사회적기업 1년차 기업입니다. 인증 받는 절차가 어렵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내 사업단에서 시작했습니다. 자활 사업단에서 쌓은 행정적 경험이 도움이 됐고, 덕분에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올 때 어려운 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일자리제공형이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인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으로가 문제죠. 취약계층 고용인원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켜야 하는 요건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 인증 절차보다 앞으로 인증 유지가 더 어려운 게 사회적기업

기업의 사회적미션은 무엇입니까.

조합원들이 살아가는 장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거기에 지역사회공헌까지. 누구나 직장을 다니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모였죠. 모여 보니 서로가 원하는 게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직원은 월급은 적어도 안정적이길 원하고, 어떤 직원은 몸은 좀 힘들어도 돈을 더 벌길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지역의 평균 월급 수준이 낮고 차이가 난들 크지 않기 때문이죠. 제주라는 작은 지역에서 아등바등 사는데,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컸습니다. 우리 기업은 조합원들의 추상적이고 다양한 욕구들이 실현되도록 해주는, 조합원들의 삶의 장이 되는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조합원들의 욕구들이 충족되는 조직이 되어야 사회공헌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해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조사하면서 놀랐습니다. 인증 1년차라고 하기에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래처 확보 등 판로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로 확보를 위해 따로 노력한다기 보다는, 제주시 지역에서만 배송을 하다가 서귀포지역까지 넓어졌고, 나중에는 제주전역으로 확대되는 형태로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배송 갈 때 비어있는 트럭으로 보낼 수 없으니 물건을 받아오기만 하다가 보내는 배송까지 하게 되는 식이죠. 한살림생협 배송이 좋은 예입니다. 매장 설립 초창기부터 배송을 했는데 한살림 매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물품을 배송하게 됐고, 그러다보니 매장이 2호점 3호점까지 생기게 되니 자연스럽게 매장 간 배송까지 맡게 됐습니다. 친환경급식이 확대되면서 한살림 농수산물을 어린이집까지 배달해주는 업무를 전담하게 됐고, 점점 제주로 내려와야 하는 물품의 양이 많아지면서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류도 맡게 된 것입니다. 이젠 조합원간 공급 배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사업이 확장돼 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누가 들으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때부터 사회적기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사

회복지 실습을 수눌음지역자활에서 하게 됐고, 거기서 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취업까지 연결됐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고, 이 곳도 훌륭한데 내가 어디까지 클 수 있을까 싶은 고민에 빠지면서 자활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고 지낸 선후배들과 얘기를 많이 했고, 자활의 외주업체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퇴직금 등을 모은 2,500만원으로 육지로 트럭을 사러갔습니다. 각오는 대단했는데, 별건 없더군요. 현금으로 2,500만원을 들고 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막상 계약하고 나니 너무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아무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업을 앞두고 이것저것 쟀더라면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물건을 들고 나르는 일이다보니 나이가 들어서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생겼죠. 그럴 때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마트나 유통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도 요양원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 “직원들의 노후를 대비해 마트· 유통사업도 구상 중”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후배 사회적기업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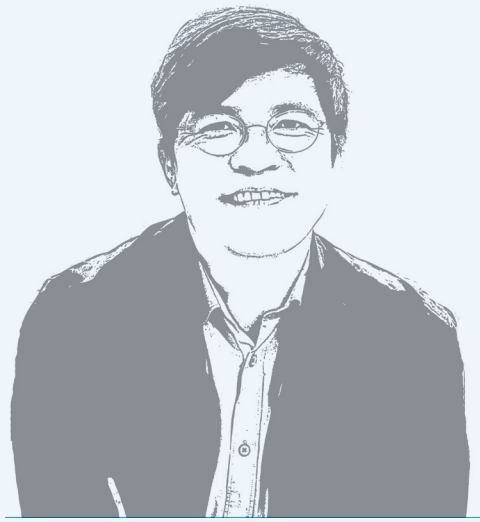
자기가 하고 싶은 사회적미션이 있으면 기존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먼저 찾아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잘 들여다보면 비슷한 기관이 있을 것이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분야가 복지와 연결된다면 기존의 복지기관이나 사회적기업을 찾아 자신이 꿈꾸던 미션에 대해 구체적인 것들을 실행해보는 것이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를 조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없을 때 창업을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사업적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료를 찾아서 일반 창업을 하는 게 낫습니다. 주변에 착한기업, 착한업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기업도 충분히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대부분 사회적기업가나 조직의 대표가 될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도 대부분 사회적기업가 양성 교육에 치우쳐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는 누가 합니까. 그 안에서 일할 조직원 양성을 위한 교육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1년차 기업소개

유한회사 섬이다 김종현 대표를 만나다



설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나선 길

매장 3개까지 늘린 유한회사 섬이다

사회적기업의 한 축은 혁신성, 하나를 만들더라도 새롭게 시도해 나갈 것
직원들이 낸 기획서로 직원주도형 신규사업 런칭이 목표

유한회사 섬이다는 넥슨 지주회사인 NXC가 지역공헌을 위해 만든 문화카페 닐모리동동을 인수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그 당시 NXC의 대외사업본부장이 지금의 섬이다의 대표이다. 이미 김대표는 사회적기업가가 되기 전부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도맡아 해오고 있었다. 문화카페 아이디어를 내고 수익금을 제주 지역내 문화사업에 지원 해왔던 장본인이었기에 그 누구보다 섬이다의 출발은 자연스러워 보였다.

김 대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우유부단이라는 카페를 만들어냈고,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받았다. 우유부단은 우리나라 최대 유기농 우유 생산목장인 성이시돌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밀크티로 유명하다. 인근에 테쉬폰이라는 독특한 건축물이 있는데다 주변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덕에 SNS를 통해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지역주민들은 외지인이, 혹은 대기업 소유의 카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제주시내에 있는 우유부단 크림공작소에서 김종현 대표와의 인터뷰는 진행됐다. 설레는 제주를 만들자고 나선 길이 과연 안정적인 대기업 본부장 자리보다 좋은지 궁금한 게 많았다. 그러나 그런 질문이 무색하게 김 대표는 요즘 사회적기업 관련 강의를 다니면서 미래의 기업은 사회적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닌다고 했다. 사업적으로만 접근했다면 지금의 우유부단은 없었을 것이라며, 소비부진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먼저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였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그가 뼛 속까지 사회적기업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온 것도, 그가 대기업에서 나와 사회적기업을 시작한 것도, 앞으로 직원주도형 신규사업을 꿈꾸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걸음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설레는 제주를 만드는 사람으로 남아주길,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

사회적기업 인증 1년차입니다. 인증 받은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지만 일단 예비 딱지를 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긴장감이 사라졌으니 그것만으로도 편해졌습니다. 인증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걸 알고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적기업 관련 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은데, 호감도가 낮은 게 더 걱정입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게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를 둘 다 추구하다보니, 기업 경영을 우선하는 사람은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적가치를 우선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적 측면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기업체 강연, 특히 금융권 강의를 가보면 사회적기업 대출 심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경쟁력이 과연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둘을 다 만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딜레마죠.

섬이다의 사회적미션은 무엇인가요.

설레는 제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레는 제주를 만드는 사람인거죠. 좀 더 매력적인 제주, 미래지향적인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화적 가치와 로컬푸드 가치를 녹여 설레는 제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로컬푸드 시장이 생각보다 제주

에서도 꽤 큽니다. 우리는 큰 규모로 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건 아닙니다. 혁신적인 모델로, 지역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나가서도 사회적기업이 미래의 기업이라고 누누이 말하고 다닙니다. 일반기업이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 잡아서 구매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점일뿐이라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업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사회적·공동체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주는 것도 사회적가치를 실현해나가는 혁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업적으로만
> 접근했다면
> 지금의 우유부단은
> 없었을 것,
> 이시돌 목장
> 문제해결이 우선

우유부단에 대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시돌목장 우유라는 아이템을 한번쯤 생각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어떻게 할까하는 생각으로 접근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시돌목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유명세에 비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떨어졌죠. 판매부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유와 카페로 발현된 것입니다. 그걸 소비자들이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이시돌 목장의 상징성, 그리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 지향성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군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쉽게 우유를 내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쉽게 접근했다면 결국엔 실패했을 겁니다. 쉬워 보일 진 모르지만,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SNS가 중요한 홍보수단이었습니까?
판로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요?

처음부터 SNS를 중요한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좋은 음식과 주변환경, 우유팩 의자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의도했죠. 사진을 찍기 좋아하는 트랜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진찍기 좋아하는 것만으로 끝내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욕구를 잘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이밍, 상품의 구성, 공간연출 등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혁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성도 또한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우유나 주변 환경만으로는 안 됐을 겁니다.

우유부단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초기에는 네이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테쉬폰이라는 건물이 있었고 이시돌목장이라는 상징성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카페 이름도 그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획자가 네이밍을 기획했고 우유부단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퇴짜를 놓았죠. 근데 그 친구도 고집이 셉니다. 두 번째 다시 가져왔을 땐 한자까지 가져왔습니다. 우유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라는 뜻에 한자가 갖고 있는 풀이까지, 그땐 이거다 싶었습니다.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우리 직원들은 대표를 설득하는 게 일이고, 혁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어렵죠.(웃음)

> 직원이 들고 온
> 이름 '우유부단',
> 처음엔 장난인줄
> 알고 퇴짜 놔

닐모리동동을 인수하고 우유부단 카페까지 성공적인데…, 앞으로의 목표가 더 궁금합니다.

식음료 업계에서 일하다보니 직원들의 근무강도가 세고 근무시간도 길다는 걸 느낍니다. 반복적인 근무에 직원들의 성장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 복지에 대해 신경을 썼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직원들의 목표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만든 기획서로 사내 벤쳐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메뉴 개발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직원주도형 신규 사업까지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유부단 카페를 지역주민들은 외지인이나 대기업이 와서 연 줄 압니다. 닐모리동동이 생길 당시 제주지역에는 로컬푸드로 퓨전음식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조라면 원조라고 생각합니다. 우유부단도 그렇습니다. 제주적인 것을 담기 위해 인테리어도 네이밍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보여주는 것, 그런 게 혁신성이고 우리 기업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주시나요?

우리 기업은 용담해안도로에 있는 닐모리동동, 이시돌목장에 있는 우유부단 카페, 제주시내에 있는 우유부단크림공작소 카페가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사업장들이 떨어져있다보니 교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혹은 두 달에 한 번씩은 전체직원회의를 합니다. 동동타임이라고 다른 매장 직원끼리 매칭해주고 서로 만나도록 밥값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매장이다보니 쉬는 날이 많지 않은데, 딱 3일은 전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추석하고 설날, 그리고 창립기념일입니다. 창립기념일 전후로 워크샵을 갑니다. 내년의 비전도 공유하고 고민도 나누죠. 이런 자리를 통해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기업에 대한 자부심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위한 교육기금도 있습니다. 분기당 15만원을 직원들의 자기계발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요리든, 헬스든, 바리스타 교육이든, 조리사든 취미활동 범위의 교육비까지 지원해줍니다. 한달에 5만원 꼴로 지원이 되는 셈이죠. 직무와 관련된 교육은 물론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식음료 매장이다보니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데 오히려 주중 낮에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 직원들
> 자기 계발비 지원,
> 다른 매장 직원끼리
> 친해지도록 매칭

잘나가던 대기업을 그만뒀지만 행복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좋은 직장이었고 그 직장에서도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죠. 돌려 말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설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만의 뚜렷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회사 내에 있으면 그런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줄어들죠. 그런 측면에서 즐겁습니다. 경제적인 수익이 줄고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1년차 기업소개

주식회사 정성기업 홍경수 대표를 만나다

평범한 세탁소가 사회적 역할 해내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정성기업

작지만 의미있는 사회적변화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
결혼이주 여성 품은 직장, 워킹맘 위한 놀이방 갖추는 게 목표

여기 평범한 동네 세탁소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의 일터가 된 사회적기업이 있다. 4명에서 시작해 현재 11명이 일하는데, 이중 다문화 여성이 4명이나 차지한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기때에는 호텔이나 리조트, 펜션 등의 이불 등을 세탁하고 비수기일 때는 공공기관 수련원의 이불이나 공장 작업복을 세탁해 경영난을 극복한다.

주식회사 정성기업의 홍경수 대표와의 인터뷰는 세탁장 옆 작은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인터뷰 할게 없다며 만류했었기에 어렵게 잡힌 일정이었다. 홍 대표는 예비사회적기업일 때의 경험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절차를 무난히 통과했다고 했다. 별거 아니라는 투였다. 공공기관 입찰 따는 과정도 무난했다고 했다. 공공기관 연수원들이 생기는 초기여서 가능했다고, 별 거 아니었다고. 홍경수 대표는 꾸며 말하지 않고 앞뒤 재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았다. 소탈했고, 겸손했다.

동네의 작은 세탁소였다가 이불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해 규모를 키우자는 생각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게 지금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결혼이주 여성들의 일터가 되니 그들의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릴 수 있는 놀이방을 만드는 게 앞으로의 목표라는 다짐이, 굉장히 별일 아니라는 투였다. 들으면 들을수록 본인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동네의 작은 세탁소였어도 홍경수 대표는 이 만큼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을 것처럼 느껴졌다. 사회적기업이라고 별다른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걸 보면 그랬다. 작업장이 협소해 사업 확장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새 보금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으니 그 고민도 조만간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홍경수 대표는 한국으로 결혼 와 낯선 땅에서 살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을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엄마의 퇴근을 기다리던 아이가 다친 적이 있다. 미취학 아동들이 많은 만큼 아이들이 아플 때도 많은데 편하게 아이를 데려와 돌볼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결혼해 와 직장을 갖는 이유들이 대부분 친정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에 공감해주며, 한국에 있는 딸을 찾아온 부모들까지 만나 안심시켜주고 있었다.

작업장 사진을 찍는데, 결혼이주 여성분들이 피하지 않고 환하게 웃어주었다. 사회적기업가라고 해서 모두 큰 꿈만 꾸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평범한 우리 동네 세탁소가 사회적기업이 되었을 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이뤄질 것이고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성기업의 앞날이 더 기대되는 이유다.

사회적기업 인증 1년차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생각을 언제부터 했는지 궁금합니다.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이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업장을, 사업규모를 좀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규모를 좀 키워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인증 절차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지원을 해줘서 수월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일 때의 경험이 도움이 됐고,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때에는 어려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뒤 달라진 점이 있나요?

사회적기업 인증 받기 전이어서 공공기관 입찰 받을 때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 년 간에도 세탁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죠. 공공기관 입찰 또한 더 치열해지겠죠. 연수원들이 이제야 생기고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로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저희 기업은 주로 작업복 세탁 및 린넨 이불 세탁을 합니다. 사업 비중으로만 보면, 공공기관이 50%정도를 차지합니다. 수련원의 이불이나 공공기관 직원분들의 작업복을 세탁하죠. 나머지 50%는 민간영역이 차지합니다. 일반 숙박업 물량이 부족할 때 공공기관 물량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성수기땐 리조트 · 펜션 물량, 비수기땐 공공기관 물량으로 극복"

계절별로도 조금 다릅니다. 여름에는 제주지역 관광 성수기이죠. 이때는 리조트나 펜션 등의 물량이 들어옵니다. 봄 가을에는 수학여행단 물량이, 겨울에는 공공기관 물량이 들어오는 식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는 비수기와 성수기가 없는 셈이죠. 더 많이 받고 싶어도 작업장이 협소해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련원 등의 공공기관의 판로확보는 입찰을 통해서 따낸 겁니다.

입찰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공공기관 수련원 근처를, 오다가다 많이 살펴봤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입찰 일정 등을 알게 됐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입찰 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여성기업이기도 하고 사회적기업이기도 하니 더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기업경영적 측면과 사회적가치 측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어렵진 않나요?

어렵죠. 요양원 등에도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장에는 결혼이주민분 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타지에서 온 외국인들입니다. 저희는 이분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결혼 이주민 여성들은 대부분 젊은 엄마들입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죠. 그러다보니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가거나 빨리 끝날 때에는 사업장에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 마땅한 휴게실이 없으니,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좁기도 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놀기 어려운 여건이죠. 다친 적도 있습니다. 놀이방은커녕 휴게실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애기가 아플 때 일하는 엄마들 마음도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결혼 이주민 여성들과 함께 일하는데 호흡이 잘 맞나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외국에서 혼자 와 무섭고 두려울 거에요. 일자리를 구할 때도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실익을 우선하지 않을까 걱정될 겁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해소해주고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 때문인지 이젠 서로의 집안 사정도 다 알 정도가 됐습니다. 가족 간에도 직원 간에도 유대관계가 좋아야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싶어 하는 후배 사회적기업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기반 갖춘 사회적기업일수록 지원효과 클 것, 자립 수준을 넘어야"

저희는 회사를 창립하자마자 초창기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조금의 기본적인 자립이 된 이후에 지원을 받는다면 더 효과가 크게 날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효과가 크지 않죠. 지원이 끝나버리면 발전을 하다가 멈춰버리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이고 자립이 된 뒤에 사회적기업이 된다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고 지원을 받다가 끊겨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립해 있을 때 사회적기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작업장 협소해 사업 확장 어려워, 새 보금자리 모색 중"

한국사람에게는 일터도 주거 공간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결혼 이주민들은 결혼을 통해서 온 낯선 곳이죠. 타지에 와서 이 분들이 기반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친정에 돈을 보내려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고 자립을 해야 떳떳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아이도 떳떳하게 키울 수 있다고요. 이분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방이나 휴게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결국 엄마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소가 협소해서 물량을 더 받고 싶어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회적기업에게 지원해주는 사업개발비나 다른 인건비 등을 지원받으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그때쯤이면 어느정도 자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큰 제주
제주사회적기업

Part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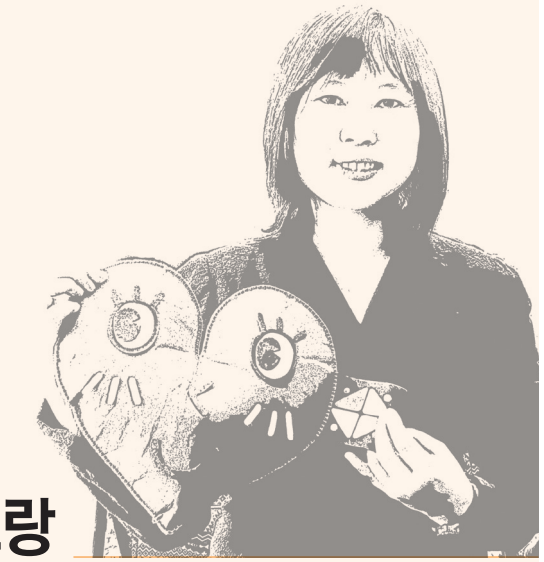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는 사회적기업 소개

인증유형별 기업 인터뷰

일자리제공형 :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에코소랑 박경숙 대표** 인터뷰
사회서비스형 : 주식회사 **제주이어도돌봄센터 김숙경 대표** 인터뷰
지역사회공헌형 : **생드르 영농조합법인 김기홍 전무** 인터뷰
혼합형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최영열 이사장** 인터뷰
기타형 : 주식회사 **제주생태관광 윤순희 대표** 인터뷰

유형별 기업소개 '일자리제공형'

사회복지법인정혜원 에코소랑 박경숙 대표를 만나다



6명에서 시작해 60여명 고용
화장지하면 떠오르는 기업 에코소랑

공공구매 대상이라고 사주지 않아, 제품력으로 승부해야
전 직원이 판매만 한 적 있어, 그때 얘기 나오면 직원들이 울어

서귀포지역에 위치해 있는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에코소랑은 화장지와 발효과실원과 허브차 등을 만드는 장애인 일터이다. 최근에는 이 차를 판매할 장애인카페인 '꼬라지오(Coraggio)' 3호점까지 열었다. 2012년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니 어느덧 6년차에 접어드는 기업이다.

에코소랑의 박경숙 대표와의 인터뷰는 꼬라지오 카페 1호점에서 진행됐다. 외관이나 내부 인테리어는 흠잡을 데가 없어보였다. 카페사업이 잘돼서 3호점까지 확장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장애인 일터가 더 풍성해진 건 맞는 것 같았다. 카페 사업 대신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을 화장지 사업에 대해서도 물었다.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화장지는 대부분 에코소랑 제품이다. 장애인 일터이고 사회적기업인지라 공공구매를 많이 해주고 있을 것 같았다. 공공구매제도의 덕을 본 것 아닌가 짐작했지만 에코소랑의 박경숙 대표는 그런 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며, 다소 억울한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전 직원이 다른 업무 제쳐두고 판매만 한 적도 있다고, 지금까지도 옛날 얘기하면 직원들이 울 정도라고.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말에 다른 제품들을 일일이 펼쳐서 길이를 다 쟀는데 대부분 속여팔고 있었고 그 사실을 공무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박경숙 대표가 말을 잘해서 그런지 하나하나의 일화들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직원교육도 장애인직원과 비장애인직원들이 다 함께 받는데, 처음엔 우려하던 강사들도 도대체 누가 장애인이냐고 되물어본다고 했다. 오히려 수업 태도가 좋은 직원이 장애인일 경우가 더 많다고 했다. 그러니 강의를 왔다가 오히려 감동받고 간다고.

박경숙 대표가 털어놓는 이야기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 했는지 전해졌다. 힘들지만, 장애인 직원들 덕분에 웃는 일이 더 많다고 하는 걸 보면 장애인 일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박 대표 또한 스스로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았다. 에코소랑의 앞날에 울 일보다 웃을 일이 더 많기를, 직원들이 옛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울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화장지· 발효차 사업 외에 카페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꼬라지오'카페 3호점까지 열었는데, 다양한 사업을 관리하는 일이 어렵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사업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방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들 때문에 늘려가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용확대를 위해서입니다. 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라든지 처우를 개선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인들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경우는 재능이 다 다릅니다. 실내에서 하는 일을 좋아하는가 하면 화장지 만드는 곳의 기계소리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식품사업까지 확대하게 됐습니다. 발효차, 허브차, 건조차 같은 아이템을 하게 됐는데, 허브차의 경우는 한 잎 한 잎 따다보니 한 병을 채우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판매 경로로는 도저히 생산량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카페를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에는 예쁜 카페들이 많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호점은 올레코스 내에 있고, 2호점은 레츠런파크 내에, 최근 오픈한 3호점은 서귀포시 청사 내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가면 화장지가 대부분 에코소랑이더군요. 판로확보를 어떻게 했는지요?

처음에 공공기관에 판매하려고 갔는데, 다른 기업의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겁니다. 결코 비싸지 않은데 비싸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른 제품들을 전부 사서 길이를 일일이 다 재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비자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적혀있는 길이와 실제 길이가 달랐으니까요. 그 가격대로 한다면 우리 제품이 쌌습니다. 그 토대로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했고 우린 정직한 화장지라고 홍보 했습니다. 화장지 포장이며 접는 부분 하나까지 신경을 쓴 상품이었기에 제품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주로 판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공구매라고 의무구매 대상이라고 제품을 사달라고 하는 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희도 그런 제도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매하는 건 정직하지 않은 제품이야"라고 홍보한 게 주요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판매에 역점을 두었냐면, 직원 2명씩 다니면서 판매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다른 업무 안하고 마케팅에 나선 것이죠. 초기의 그런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에코소랑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직원들이 그때 얘기를 하면 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장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애인 직원들에게 테이핑 박스에 담는 것만 6개월을 가르친 적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인지 정도가 7살, 3살 5살 정도니까요.

> "처음엔 테이핑박스에 담는 작업만 6개월, 허브차 한 병 만들 때 일주일 걸릴 때도 있어"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직무를 주려니 그걸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숙련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 과정이 눈물이 날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눈물겨운 일들이 많았네요.
처음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사회적기업이 처음부터 목표였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을 제정하는데 기여하셨던 분이었고, 그 교수님이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상황을 다른사람보다 먼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강의를 들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와닿았겠지만요.
사회적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갈수록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사가 까다로운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지원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생각이 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잘 모르면서 뭔가, 심사위원이라는 권력으로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해서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났죠. 그러고 나서 며칠간 울었지만요. 지금은 액수가 더 커졌으니 심사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기업 경영, 이 두 가지 측면이 맞물려가야 하는데,
이를 유지해나가는 게 어렵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겪는 딜레마입니다. 시장에서는 전쟁인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게다가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인데…. 장애인 일터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거나 불쌍한 곳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정은 사절입니다. 저희는 정직하게 일하고 좋은 재료로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게 희망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계를 풀가동해서 규모의 경제로 돌아가는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면, 사회적 가치를 우선 생각합니다. 가끔 OEM 제의가 들어옵니다. 꽤나 큰 사업 규모의 그런 유혹들이 옵니다. 사실상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회적 가치 때문에, 우리 이름으로 정직하게 생산하고 판매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미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장애인 일자리창출 뿐만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에도 가치를 둡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까, 후세대한테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포장지 하나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재료를 씁니다. 카페에서도 텀블러를 가져오면 천원을 할인해줍니다.

기업 운영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남들이 얘기합니다. 처음 6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40여명이 일하고, 비장애인까지 합치면 60여명이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으니 성공한 거라고요. 물론 초창기보다 사업도 안정

> “이젠 직원교육 온 강사들이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비장애인이냐고 물어볼 정도”

장애인 카페
3호점까지 도전 중,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친구들 때문에
웃어

화됐기 때문에 뿌듯합니다. 그러나 사업적 성과보다는 장애인 직원들의 솜씨가 많이 늘었을 때 더 보람을 느낍니다. 작업장에 들어가면 누가 장애인인지 누가 비장애인인지 모를 정도죠. 그런 분들이 중증장애인이고,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는 채용이 안 됐던 분들이었습니다. 감정 변화도 크죠. 장애에 대한 특성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우리 기업에는 감정변화가 심해서 아직도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혼자 일 하는 걸 보면 감동받을 수 밖에요.

또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인권 교육이 있잖아요. 전 직원이 받아야하는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나눠서 받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도 같은 직원이니 다 같이 받아보자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려했던 문제들도 발생하지 않았죠. 지금까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강사 분 들도 처음에는 힘들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다가 끝나고 나면 감동을 받고 나갑니다. 장애인분들이 교육을 더 열심히 받고 오히려 비장애인 직원들의 수업태도가 더 안 좋지요. 이렇게 숙련도를 올리는데 5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뤄낸 것인데, 이 자체가 감동입니다. 때론 골치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이 친구들 때문에 웃게 되니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유형별 기업소개 '사회서비스제공형'

주식회사 제주이어도돌봄센터 김숙경 대표를 만나다

저소득여성들이 주주인 종업원지주회사
주식회사 제주이어도돌봄센터

2명으로 시작한 산모도우미 사업이 이젠 주력사업, 힘들 때 버텨준 직원들이 제일 큰 힘
외곽지역 서비스 하지 말자는 직원에게 우리가 안하면 누가 하냐 되묻곤 해

이어도돌봄센터는 방문요양,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돌봄사업 등 돌봄영역의 사업을 전천후로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다. 제주시에 위치해있지만 한경면에서부터 구좌읍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도 이어도지역자활센터 내 산하조직으로 시작해 2015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고 그 해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엄혹한 복지환경에서도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겠다'는 기업 소개 글이 그냥 쓰인 것 같지 않은 듯 김숙경 제주이어도돌봄센터 대표는 인터뷰 내내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대표의 말마따나 돌봄센터가 경영 압박을 받는다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기에 공감이 갔다. 그때마다 힘이 되어준 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버텨준 직원들이었다는 말도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들로 인터뷰는 채워졌다. 기사가 쉽게 쓰여 질 것 같지 않았다. 궁금했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외곽 지역 돌봄서비스에 대한 신념을 지키고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무엇인지 말이다. 저소득층 여성들이 주주인 제주이어도돌봄센터의 대표가 말하는 공공성 확보가 그래서 더 진지하게 와 닿았던 이유였다.

걱정 없는 돌봄, 불안하지 않은 노후는 결코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사회복지체계가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김 대표가 더 이상 힘든 과정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자활 산하기관에서 시작, 독립하기 2년전 부터 전국 돌며 사전조사 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계기가 있습니까

돌봄영역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2008년도 이어도지역자활센터였습니다. (자활센터는 실직상태이거나 생계가 불안한 취약계층에게 취업이나 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해 이들이 노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자활의 산하기관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로 출발했죠.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독립하기 2년전 부터 전국의 돌봄영역의 기관들을 현장조사 했습니다. 서울, 부산, 천안, 청주 4곳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전부터 사회적기업을 염두 해 두고 있었지만, 현장조사 중 한 곳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기업의 사회적미션은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면서도 지켰던 건, 아닌 말로 피를 흘리며 지켜낸 가치 중 하나가 읍면 외곽지역의 돌봄서비스였습니다. 우리는 일반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혹 종사자분 들 중에 왜 그렇게 먼데까지 가야하느냐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답답하니까 그러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기관이 아니면 누가 가겠냐고, 우리까지 멀다고 안 간다면 기본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버리는 것 아니냐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만큼 우선을 두는 건, 일자리 유지입니다. 한때 바우처 사업을 하다가 이용자 인원을 60명에서 10명으로 줄여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책이 바뀌면서 복지서비스가 갑자기 감축된 것이죠. 그때부터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노인돌봄이나 가사간병 등 다양한 돌봄사업을 하기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다른 기관이 어려워서 사업을 접을 때 우리는 그 분들을 오히려 고용해 사업을 흡수했습니다. 산모 도우미 사업을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돌봄센터의 주력사업으로 성장한데에는 이런 이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때 잘된다고 지금 잘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더군요. 복지서비스 영역도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지금의 돌봄사업이 나중에도 잘되리라는 보장을 못합니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라도 1명의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버텨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이어도돌봄센터도 없었을 것입니다.

종업원지주회사입니다. 처음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직원들이 출자하고,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종업원이 주주가 된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였죠. 주주가 되면 책임도 크다고 인식하는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 이사직을 맡지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오해였죠. 권력을 나눠서 가지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가족의 반대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참여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현장직 위주로 꾸렸고, 초기에는 매달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건, 모든 게 처음이었고 매달 파란만장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접수하고 같이 책임지기로 했으니 서로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것이죠. 지금은 다행히, 노하우가 쌓여서 분기별로 이사회를 합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열게 된 계기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보고나서 입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야 알았던 겁니다. 이사회를 분기별에 한번 정도 여는 게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을요.(웃음)

사회적기업이 돼서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규직 고용이 어려운 여건이다보니 일자리지원은 받기 어려운 구조기때문입니다. 바우처 사업비로는 돌봄 선생님들 월급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실 실무자 인건비가 감당이 안되는 구조입니다. 회계나 행정사무를 보는 직원들을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한참 어려운 시기에 다행이다 싶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사자 분들이 많아서 사회보험료도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 매달 엄청난 서류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지원받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지역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기업이 5개 안팎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이슈중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활과 공제조합(조합원들이 상부상조하기위해 자주적으로 만든 조직)을 운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대출을 해줍니다. 일 년에 두어 번 생태체험을 가고, 정부나 주변 기관에서 하는 교육이나 워크샵 등도 지원해주죠. 하지만 이런 직원 복지 확대도 필요하고 처우개선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종사자간 급여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가사간병, 재가복지, 방문요양, 산모돌봄 등 돌봄서비스 간 시급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 안에서도 서비스간 격차가 있기도 하죠. 이해가 잘 안되실 겁니다.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인지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정부가 가산하여 수당을 더 주기 때문에 종사자분들이 다른 것보다 이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지 활동 수당을 주는 치매 등급이 있으니 그런 대상자분들에게만 가려고 하는 거죠. 참.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모든 유형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돌봄영역은 공공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민간영역으로 시장에 뿌려놓았습니다. 돌봄센터가 매출이나 기업경영에 대한 압박을 받아서는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몫이 이용자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까봐 우려됩니다.

> “노인돌봄 서비스 · 산모신생아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2016제주경제대상 특별상까지 수상”

사회적기업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다면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다양한 행사를 통해 비슷한 사회적가치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게 큰 의지가 됩니다. 물론 일반 기업도 경영이 쉽지 않겠지만, 사회적기업은 어려운 그 와중에도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잖습니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이걸 왜 선택했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흔들릴 때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최근에도 서귀포에서 진행한 휴먼라이브러리 행사 때 만난 사회적기업 대표들을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20년 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 의지가 솟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아니었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유형별 기업소개 '지역사회공헌형'

생드르 영농조합법인 김기홍 전무를 만나다

농업 생산자단체 유통사업단으로 시작
매출 100억대 기업으로 성장한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미션
사회적기업이 아니었다면, 그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공부해야 했을 것

생드르영농조합은 제주지역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한 '조천읍 유기농업연구회'라는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에서 그 뿌리가 시작됐다. 이후 흙살림제주도연합회로 바뀐 조직 내 유통사업단이 됐다. 벌써 18년 전, 2000년도의 일이다. 2년 후 생드르영농조합법인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생드르영농조합법인의 김기홍 전무는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달려온 차림으로 인터뷰에 임했다. 매출100억원대를 달성하고 있었지만 일반 기업 임원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인터뷰 내내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 얘기하고 농업의 가치에 대해 얘기하니 더 그랬다. 사회적기업이 되면서 자립 기반을 닦았다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그때 하지 않았더라면 그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배워야 했을 거라고. 처음과 끝을 '농업의 중요성'으로 마무리한 김기홍 전무는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다.

인터뷰 이후 생드르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는데 규모가 큰 여러 가공 공장과 창고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제야 사회적기업이 외연만 확장해서 되겠느냐고 강조한 김기홍 전무의 조언이 떠올랐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았다. 생드르가 현재 어떤 지점에 서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생드르영농조합은 어른기업으로 성장해나가고 있었다.

생드르영농조합법인의 사업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농산물유통이 주 사업입니다. 한살림생협이 한 40%정도를, 30%정도는 서울학교 급식이, 30%정도는 제주급식이 차지합니다. 서울학교까지 소포장해서 급식센터로 보내죠. 현재 생산조합원이 130명, 친환경급식 위원회 회원이 160명 정도 됩니다.

생드르영농조합법인은 흙살림제주도연합회 내의 유통사업단입니다. 흙살림은 조직의 몸체로 농업운동을 하고 생드르는 이 운동을 지속가능토록 만든 공공사업단인 것입니다. 흙살림 조직 내에 생산자 공동체가 제주시, 조천, 구좌, 성산·표선, 대정 지역별로 있고 분과별로 과수분과와 밭작물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조직내에서는 위원회 등이 복잡하니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되고나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예비사회적기업때부터 인력 지원을 받았고, 생드르영농조합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사업을 성정시켰고,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었고, 급여를 보장해줄 수

있었죠. 아마 사회적기업이 안됐더라면 그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내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열었던 총회가 떠오릅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선 정관을 바꿔야했고, 이윤의 2/3을 재투자해야 하는 것과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예상외로 쉽게 통과됐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할게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회적기업이 됐습니다.

조직의 사회적 미션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정적인 생산·소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생길 당시, 진드르라는 지역에서 수박과 배추 농사를 짓는데, 화학비료로 농사를 계속 하다 보니 연작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그땐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증 제도도 없을 때였습니다. 판로도 없었죠. 애쓰게 생산했는데, 소비자와 연이 닿으면 팔고 안 되면 못 팔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경제사업체를 따로 만들자 해서 생드르영농조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내심 망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업단으로 한 이유도 경제사업체는 망해도 되지만 조직은 망하면 안되기 때문에 분리해 시작한 것입니다.

> 농가 스스로
> 생산 안정 기금 조성,
> 품목별 생산 및 출하 해

농사라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주세요.

일 년에 두 번 농가들한테 생산계획서를 미리 받습니다. 그러면 그 생산계획서를 바탕으로 분과 위원회에서 짠 소비계획과 맞춰봅니다. 그러면 어떤 작물은 부족하고 어떤 작물은 넘치는지 파악이 되죠. 그러면 소비계획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겠다고 한 농가에게 생산량이 부족할 것 같은 작물을 추천해줍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농가들은 수확시기가 됐을 때 판로를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농사라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한 것보다 생산량이 더 많을 땐 최선을 다해 팔아줍니다. 모자랄 땐 어쩔 수 없습니다. 농가가 생산량을 일부러 줄이진 않았을 테니까요.

일부 농가들은 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 다른 판매자에게 팔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 가격이 더 크게 오르면, 시세 차익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럴 때도 우리와 약정을 하고 안하고는 농가의 선택입니다. 농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안정기금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이 농업운동을 하는지, 농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점점 잊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데에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농업이 갖고 있는 문화와 교육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땅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수리 능력과 언어 능력 같은 성적 위주로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수치화해서 평가할 수 없는 배려심이나 이해심,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력, 체력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던가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농촌이 가졌던 문화와 교육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농업은 식량생산
> 뿐만 아니라 환경적 ·
> 교육적 · 문화적 가치
> 담고 있어

사회적기업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끔 조합원들과 이런 얘길 했습니다. 여기 저온냉장고가 400평이 넘고, 창고도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시설들을 임대해주고 관리만 해준다면 지금보다 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더 벌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요. 수익성만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수익성만 생각했다면 우리 기업도 갈지자행보를 걸었을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기업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환경농업을 농업의 지속가능한 수단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날수도 있다는 걸 감수하면서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농업이 가진 가치의 확산, 농업의 지속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땅을 숨 쉬게 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사꾼들은 열흘을 굶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합니다.

크든 작든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 앞으로는 외형이 아니라
> 내실을 기하고
> 안정화에 힘쓸 것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물을 때 난감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기업의 성장이나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취지일텐데 우리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성장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기업은 급성장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30억원에서 100억원대로 성장했죠. 이 성장세로는 앞으로 5년 후에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300억 매출 달성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외연만 확장하는 건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외형을 늘리는 데만 치중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실을 기하고 안정화를 기하는 것에 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체감행복도를 올려주고 자부심을 심어줄까 고민합니다. 우리가 왜 이일을 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유형별 기업소개 '혼합형'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최영열 이사장을 만나다

인쇄 및 판촉물 사업하는 발달장애인 일터,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17년 협동조합의 날 우수협동조합 경제부총리상 수상 쾌거 장애인 일자리 먼저 탐색, 수익 모델 방안은 그 다음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인쇄 및 판촉물 사업을 벌이는 기업이다. 명함이나 책자 발간부터 기념품이나 홍보용 판촉물 등을 기획·제작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까지 2년 안팎이 걸렸다. 일사천리였다. 기업의 설립 의도도 확실했고 수익모델이나 판로도 명확했다. 2017년 협동조합의 날에는 경제부총리상까지 받았다. 기업은 단기간에 안정적인 괘도로 올라선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최영열 이사장은 인터뷰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했다.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답변이어서 인터뷰를 빨리 끝낼 수 있었다. 사회복지법인 일배움터에서 사회적기업을 경영해봤던 노하우가 있는 덕분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과를 놔두고, 사무실 정착이 제일 큰 성과라고 최 이사장이 말했다. 그동안 유수암에서 시청, 중앙로까지 이사를 세 번이나 다녀야 했다고 했다. 이젠 직장 내 식당과 카페가 생겨 장애인직원들과 여러 식당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고, 바리스타가 꿈인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일이 그 어떤 성과들보다 보람 있었다고 했다. 함께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을 위한 마음이 항상 우선인 것처럼 들렸다. 기업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처음부터 공공구매 가능 사업으로 아이템 잡아"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빠르게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희망나래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이미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은 깊었지만, 인증 절차는 단기간에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매출 향상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서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덕분에 여러 공공기관, 교육청이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JDC 등에서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쇄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이었고, 그 다음이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공공시장을 염두 해 두고 시작했습니다. 우선 구매되는 제품으로 사업 아이템을 잡았죠.

공공기관의 특성상 공무원들이 자주 부서 이동을 하는데, 오히려 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서를 옮겨간 직원이 우리에게 인쇄를 맡기게 되면서 더 확대 된거죠. 그렇게 조금씩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물품이다 보니 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일정도 잘 맞춰줘야 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품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비싸면서 기간도 맞추지 못했던 때도 있었겠지만 요즘 사회적기업들은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품질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구매 제품이라서 구매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요?

판로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우리는 장애인 200여명을 고용해 인쇄사업을 하고 있는 베어베터라는 사회적기업이 롤모델입니다. 발달장애인계의 꿈의 직장으로 통하는 기업이죠. 우리에겐 멘토 기업이고 많이 배울 수 있게 배려해 준 곳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의 노하우 중 하나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판로확보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미달할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의무고용 대신 벌금을 택하고 말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제주지역에서만 30억에서 40억쯤 됩니다. 장애인이 생산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줍니다. 이런 것을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야 하는 명함 같은 것만 우리에게 맡겨도 고용부담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200여명 고용하는 "베어베터"가 롤모델"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나요?

기업성을 살리려면 일반기업을 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사회적 가치나 사회 문제를 인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원한다면 사회적기업으로 풀어나가야 하겠죠. 그러려면 우선 그 가치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가치가 갖춰져 있다면 주저 말고 좀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죠. 많은 사람이 했으면 합니다.

우수협동조합 경제부총리상까지 수상했고 그밖에도 많은 성과를 냈는데, 기업을 운영하면서 보람됐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우리 기업은 단기간에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도 됐습니다. 경제부총리상까지 수상했죠. 물론 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 사무실로 이사와 정착하게 됐다는 게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봅니다. 유수암에서 시작해 시청 사무실에서 중앙로까지 이사를 다녔습니다. 시청 사무실도 넓고 교통편도 좋았는데 갈만한 식당이 없었던게 문제였죠. 장애인 직원들이 여러 식당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여기는 사내 식당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조그마한 카페 공간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도 직업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리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사내 카페지만, 앞으로 이 곳에 카페를 열 생각입니다. 기존의 평범한 방식의 카페가 아니라 좀더 새로운 모델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만 장애고용부담금 규모가 30~40억, 명함 하나만 맡겨도 부담 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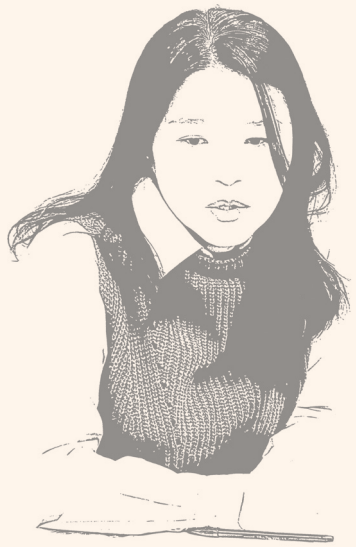
장애인고용에 대해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장애인 일자리는 지역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실행조직이든 공공기관이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경쟁력을 갖췄더라도 우리 장애인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지역에서 이용해주지 않으면 어려워지고 말것입니다. 공공구매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정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매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성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으니 사회적기업 제품만 구매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만의 논리를 개발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일하는 환경이 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우리만의 생태계를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아직은 초기단계다보니 각종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을 실효성 있게 이끌어갈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형별 기업소개 '기타형'

주식회사 제주생태관광 윤순희 대표를 만나다



제주지역에 공정여행 씨앗을 뿌리고 안착시킨
주식회사 제주생태관광

'이야기제주'여행사로 시작해 어느덧 17년차, 사회적기업 인증 8년차 기업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여정, 환경을 우선하는 건 변하지 않는 최우선 가치

주식회사 제주생태관광은 2001년 '이야기제주'라는 역사문화기행 전문여행사로 시작했다. 제주의 곶자왈이 무분별하게 파괴되어 사회적문제로 대두될 때였다. 제주생태관광은 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주적인 여행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정여행에 대한 개념이 생소할 때였다. 그렇게 회사를 키워나가다 2010년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어느덧 8년차다.

제주생태관광 윤순희 대표는 직원 워크숍 중에 잠깐 자리를 나왔다고 했다. 직원 교육을 많이 한다고 먼저 실토했다. 직원들이 좋아한다고 했지만, 살짝 미안한 표정이었다. 그러면서도 최근 입사한 직원이 17대 1의 경쟁률로 들어왔다며 자랑도 잊지 않았다. 회사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는 그 열정만큼은 여전해보였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굳건해보였다. 윤 대표가 직원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교육을 듣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랬다.

윤 대표의 바람은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로 일관됐다. 환경과 주민을 위한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었다. 기업이 지난 17년 동안 다른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들이 숨어있는 것 같았다.

창립후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사회적기업이 됐는데, 어렵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창립할 당시에는 제주지역의 곶자왈 파괴 등이 사회문제가 될 때였습니다.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해가며 골프장도 짓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할 때였죠. 제주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주의 문화와 자연이 훼손되었죠. 우리 기업은 그런데서 오는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정부에 인증을 받은 것이니까요. 인증만으로도 우리 기업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목표와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겠죠. 지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기업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17대1 경쟁률로 입사, 회사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람 뽑아”

기존 여행프로그램보다 더 품이 들지 않나요?

기존의 단체 여행프로그램과 비교하면 더 준비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생각해보면, 혁신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 기업은 공부를 많이 하는데, 문제의식을 서로 공감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워크숍 모임들을 통해서 파이팅(!)이 된다고 봅니다. 이 또한 혁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직원의 말투나 태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행자들을 바로 대면해야 하니까 그렇

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뭐하나 지적할게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간섭할게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직원은 17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입사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도 우리 기업, 우리 회사가 당신의 직업이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회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뽑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교육을 많이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 교육도 지원해주는데, 이때에는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역량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동료들과 지내지 않느냐, 동료가 나의 오랜 벗이라는 점도 늘 강조합니다.

선흘리·하례리처럼 마을주민들과의 협업은 성공적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마을 주민들과의 협업은 경이롭다는 단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일반 조직과 기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주민들에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일방적으로 심은들 되지 않습니다. 마을과의 협업은 그야말로 인내의 연속입니다. 진짜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순간 보면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마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전까지 힘들었던 과정은 생각나지 않고 경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주민들이 모두 만족해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공이란 단어는 부담스럽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건, 지금 사업이 잘된다고 나중에도 잘되리라는 보장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되던 사업도 나중에 잘되기도 한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한 여행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휴식과 위안을 얻으며 팀워크를 기를 수 있는 풍(風)힐링워크숍, 대규모 관광지 위주로 돌아다니며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수학여행이 아닌 행복한 수학여행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프로그램 외에 최근 기획하는 것 중 하나가 ‘마더앤도터’입니다. 아직은 가칭입니다만, 엄마와 딸을 위한 여행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워 보이고 친해 보이지만,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관계이죠.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엄마는 딸을, 딸은 엄마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행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더 의미있는 건 사회적기업인 ‘꿈틀’과 ‘섬이다’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만드는 기업인 ‘꿈틀’은 사진과 섬세한 기획을 도와주며, ‘섬이다’는 제주적인 로컬퓨전음식점인 ‘닐모리동동’을 통해 여행객들의 먹거리를 맡아줄 예정입니다.

> “생태관광 통해 온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할 때 보람 느껴”

그리고 2018년은 제주지역의 역사적 아픔인 '제주4·3'이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금까지도 4·3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기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우리는 좀 다르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600만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양적인 성장은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제주관광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제주관광객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제주도 관련 검색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주는 관광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지역 총생산량(GRDP)의 45%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역주민들은 만족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관광을 제대로 하자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제주도, 제주도민, 제주자연을 위한 지속가능성이 우선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의 여행패턴이 완전히 사라져야한다는 건 아닙니다.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관광객을 탓 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제주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해, 그런 의미에서 대안여행이나 공정여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생태관광프로그램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행객들과

함께 다닙니다. 여행소비자들에게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밖에 없죠. '고마워요, 윤순희'라는 엽서를 받을 때, 이 회사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마을을 찾아가 주시고, 그 지역의 농산물이 팔릴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행소비자들에게 마을에서는 주민들에게 먼저 인사하자는 등의 기본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주민들의 생업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생태관광을 통해서 온 손님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칭찬해줄 때 감동을 느낍니다.

제주에 사회적기업이 생긴지 10년이 됐고 제주생태관광도 대표적인 선배기업으로 꼽힙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관점에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창기부터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일자리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때 정량적인 지표로만 잣대를 재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가치 지표를 만들어놓았지만, 좀더 열린 테이블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먼저, 우리가, 우리 기업 당사자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만큼 잘해내고 있다고, 기업이든 협의회차원이든 자체적으로 지표를 만들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마케팅을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내세운 마케팅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올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주민과의 협력사례 높이 평가돼, 마을주민들과의 협업은 경이로워"

더 나은 삶
더 큰 제주
제주사회적기업

Part 05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소개 및 상품홍보

1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2 사회복지법인 **마로원**(길직업재활센터)
3 유한회사 클린서비스 **보금자리**
4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일배움터**
5 유한회사 **엔젤지원사업단**
6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7 ㈜**제주생태관광**
8 주식회사 **혼디**
9 **생드르** 영농조합법인
10 주식회사 **서정**
11 사회복지법인정혜원 **에코소랑**
12 **더불어** 주식회사
13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영농조합법인
14 **한울** 영농조합법인
1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살림**
16 **제주물마루된장학교** 영농조합법인
17 주식회사 **한라환경**
18 주식회사 **푸른바이크쉐어링**
19 사회복지법인 창암복지재단 **엘린**
20 농업회사법인 ㈜**제주허브**
21 사단법인 국안연희단 **하나아트**
22 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연구원**
23 **제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
24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25 **소담제주** 영농조합법인
36 주식회사 **디엘에스**(DLS)
37 주식회사 **대유기업**
38 주식회사 **시와월드**
39 농업회사법인 ㈜**제주공방**
40 ㈜ **제주이어도돌봄센터**
41 ㈜ **해피맘하우스**
42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43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44 **제주희망협동조합**
45 주식회사 **정성기업**
46 유한회사 **섬이다**
47 **의귀마을영농조합법인**
48 주식회사 **꿈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12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08-01호

인증일
2008-04-28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http://peacevil.ejeju.net
쇼핑몰http://www.jjmom.net/

전화번호
064)794-6277

팩스
064)794-6279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은 청정제주의 엄선된 재료로 최고급의 웰빙 제품을 생산합니다.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한 먹거리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유급고용을 통해 독립생활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적기업입니다.
평화의마을은 제주의 돼지고기, 무항생 닭고기, 생야채를 주원료로 하는 수제 햄과 수제 소시지를 고집스럽게, 5無(無보존료, 無색소, 無인공조미료, 無대두단백, 無아질산나트륨)를 실천하며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축산물 가공, 소시지, 햄, 빵

주요상품

· **제주맘 강황소시지** : 제주산 무항생 흑돼지 돈육에 제주산 울금을 넣어 만든 소시지입니다.
· **제주맘 자연치즈 소시지** : 제주도에서 자란 젖소의 원유로 만든 생치즈가 입안 가득한 부드러운 소시지입니다.
· **제주맘 그뤼네소시지 등** : 신선한 제주 흑돼지고기에 곱게 간 부추를 넣어 건강한 부추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소시지입니다.

주요연혁

·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농,수,축산물 품질인증 J마크 인증, 고용우수기업 인증, 독일 kinsky육가공 기술제휴
· **2012년** 축산물HACCP운영우수작업장 선정/제주광역권선도산업 수행기관 선정
· **2013년** LOHAS 인증 및 LOHAS Awards 최우수 제품상 수상
초록이네 무공이네 납품 /독일 IFFA식육가공 콘테스트 국내최초 금메달 6개부문 수상 / 국제디자인 어워즈 수상 / GS홈쇼핑 런칭 / 발효육제품 브랜드 'Friedenheim'디자인상 수상 / 도민행복 민생 시책 발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 **2014년** 현대백화점·롯데호텔제주·롯데시티호텔제주 ·신라호텔 입점 / 홍콩 로하스박람회 참가 / 동아시아 로하스협회 우수상 수상,
· **2015년** 제주맘 분당직영점 매장 오픈 / 현대백화점(3곳) 입점 /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 **2016년** 6차산업우수제품 품평회 3,4,5위(농림축산식품부)
· **2017년** 제주맘 소시지 홍콩수출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뱅디길 88-17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08-002호

인증일
2008-04-28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www.marojeju.co.kr

전화번호
064)796-5777

팩스
064)796-6011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길직업재활센터)

사회복지법인 마로원은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어렵고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늑하고 편안한 쉼터가 되고자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마로는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의 굵고 길게 쭉 뻗은 뿌리', '으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순 우리말입니다.

주요사업내용

- 세탁, 종이컵, 물티슈, 보리빵, 천연발효빵, 초콜릿 제조

주요상품

- **세탁사업** : 친환경적인 면 원단을 사용하며 무알콜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무독성·무자극 물질로 조성된 강력한 살균 탈취제를 사용해 위생과 사용자들의 건강까지 배려하여 세탁합니다.
- **물티슈 사업** : 친환경적인 부직포 원단을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며 업소의 위생과 경제적인 비용절감까지, 두 가지 만족을 한번에 얻을 수 있도록 제조합니다.
- **종이컵 사업** : 무형광 고급천연펄프를 사용해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기존 제품들과의 차별화된 종이컵을 만듭니다.
- **제빵사업** : 청정제주에서 재배된 보리, 쑥, 팥 등을 원료로 한 찐빵류, 직접 만든 천연발효종을 사용하여 구운 건강식 천연발효빵을 만듭니다.

주요연혁

- **2006년** 뉴욕한인봉사센터와 자매결연 체결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연계사업 시행
- **2009년** 중증장애인, 장애인 생산품 시설 지정 – 위생물수건, 일회용종이컵
- **2010년** 제과점업 및 물티슈 제조영업신고 수리
- **2011년** '돌코롬'보리빵 제과점 개업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3길 14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08-004호

인증일
2008-10-24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http://bogumjali.egloos.com

전화번호
064)711-4111

팩스
064)751-4111

유한회사 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청소명품 – 청소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클린서비스보금자리는 '사람에게 행복을 판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자신들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나눔과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

- 환경 (방제, 청소)

주요상품

- **홈-클리닝** : 전문장비와 친환경세제를 사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 **오피스-클리닝** : 사무실·병원·학교 등 건물 사용용도에 맞게 청소 방법 설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준공클리닝** : 아파트·주택·상가 등 신축건물을 사람이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수클리닝** : 전시물 클리닝·대리석 연마광택작업·로프 작업 등 설치물 목적에 맞게 청소하는 방법 등을 설계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저수조청소 & 방역** : 고압차량을 사용하여 저수조를 소독·청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요연혁

- **2009년**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직장문화기업 우수기업체 선정
  2009년부터~ 추자지역 무료방역서비스 진행
- **2013년** 김영미씨(보금자리 근무) 보건복지부 자활명장 선정
- **2013년** 베스트 자활기업 선정(보건복지부)
- **2017년** 2017 제4회 우수사회적기업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우수상 수상
  2017 제주경제대상 종합대상 특별상 수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와5길 83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08-005호

인증일
2008-12-31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www.ilbaeumteo.net

전화번호
064)723-9103~4

팩스
064)723-9105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일배움터

일배움터는 '나눔이 풍경이 되는 세상'을 가치와 철학으로 삼고, 청년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일배움터는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인격적인 독립과 존중을 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적응·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작업능력과 잠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원예 작물 재배 및 도자기 용품 생산, 고사리, 무우말랭이

주요상품

- **원예사업** : 도자기화분, 꽃다발, 축하근조화환 등이 있습니다. 제주도 및 전국배송이 가능합니다.
- **[탐라지오] 농산물사업** : 제주산 건조 농산물로, 고사리·표고버섯·취나물·무말랭이가 있습니다. 제주공항 시즌상품, 아름다운가게 등에 납품 중인 상품입니다.
- **[플로베][I got everything] 카페사업** : 청년장애인바리스타 카페입니다. 꽃다발, 화분 주문 및 청년장애인이 만든 도자기 구입도 가능합니다.

주요연혁

- **2007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선정
- **2010년** 동부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 체결/ G마켓입점 / 동부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 체결 /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 체결 /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와 MBC MOU체결,
  신규상품개발 및 상품패키지디자인 지원사업 협약체결(함께일하는 재단)
- **20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원예납품계약 체결
- **2012년** 플라워카페 [플로베] 축복식 및 오픈식 / 바리스타 이동카페 운영 / 표선고등학교와 산학협력 체결 /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사업 선정(에스프레소머신기 등)
  제주지식재산센터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지원사업 선정
- **2013년** 장애인직업재활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제주국제자유도시) / 전국지적장애인바리스타대회 플로베 우수상수상 /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14년** GS홈쇼핑 건조농산물 런칭 / 2013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기관 선정 / 제주영지학교 업무협약 체결 /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우수상표권공모전 은상(특허청장상) 수상 / 플로베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선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 일자리 창출 유공자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 생산·유통분야 우수시설 –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지적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과정 수강생 10명 '바리스타자격증' 취득
- **2015년** 제주교구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개원 10주년 기념식 개최
  ㈜제이씨엠과 장애인바리스타 양성 업무협약 / 지적장애인 바리스타양성과정 수강생 10명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 **2017년**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국무총리표창 / 청년장애인바리스타 카페 [I got everything] 제주도청점 오픈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대로 87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09-001호

인증일
2010-01-26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전화번호
064)784-5064

팩스
064)782-7064

유한회사
엔젤지원사업단

유한회사 엔젤지원사업단은 사회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밀착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기업적 사회서비스 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노인 요양 보호

주요상품

- **방문요양서비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1~3등급 인정을 받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지역 내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에게 주거환경 개선, 병원 동행,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약계층 이동지원 사업** :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병원수행 및 외출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랑나눔 푸드마켓 이용 대행사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푸드마켓에서 매달 지원해주는 식재료와 생필품을 대신 방문해서 원하는 물품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연혁

- **2008년** 노인장기요양사업 실시
- **2009년** 푸드마켓이용무료대행서비스 실시
- **2011년** 엔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개소 / 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업무협약체결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사1사회적기업 결연 협약 / 디딤돌일자리사업진행
- **2012년** 수눌음일자리지원센터 희망일자리네트워크 참여 협약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행복·나눔의 경로잔치' 개최 / 엔젤간병사업단 운영
- **2013년** 엔젤간병사업단 운영 / 제1기 전문간병인 양성교육 실시 / 제주의료원과 간병인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2014년** 방문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조천읍 경로당활성화위한 지원금 전달
- **2016년·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그린기관 선정

주요사업내용

· 청소, 친환경 방역, 집수리, 액비

주요상품

· **해보라(생선 발효 아미노산 액비)**
– 주요성분(원료) : 광어, 당밀, 발효제
– 특징
· 흡수 : 잎과 뿌리로 빠르게 흡수
· 토양 : 보수력 행사 / 양분 흡수율 증가·영양원 고정 / 특정 원소 집적 조절· 불용 성분의 가용화 /토양 수질 개선 / 용존 산소 증가
· 작용 : 염류 집적 및 해거리 극복/뿌리 활력 향상 / 토양의 생산력 증대 / 생육 증진 효과 /건조, 강우, 고온, 서리 등의 각종 스트레스 극복 / 당도 및 감미 증가/ 냉해·일조 부족으로 인한 생리 장해 극복 / 로이신은 착색 촉진, 아르기닌은 병원균 생육억제

주요연혁

· **2013년** 부설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설립
· **2014년** 비상품 광어 원료 액상비료 '해보라' 중국 수출
· **2017년** 사회성과인센티브추진단 '제2회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우수기업 선정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82번길 16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0-002호

인증일
2010-07-29

사회적목적실현유형
혼합형

전화번호
064)733-8223

팩스
064)763-8221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

(사)일하는사람들은 참여와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등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향상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0-003호

인증일
2013-05-27

사회적목적실현유형
기타형

홈페이지
www.storyjeju.com

전화번호
064)784-4256

팩스
064)782-5199

주식회사
제주생태관광

㈜제주생태관광은 2001년 역사문화기행 전문 여행 '이야기제주'로 시작해 2003년 기존 대중 관광의 문제점을 공감한 에코가이드(생태문화해설사)들이 제주관광의 새로운 문화를 일구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제주생태관광은 대안적 여행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려는 야무진 꿈을 이루기위해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공정한 여행프로그램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제주생태관광 · 공정여행

주요상품

· **風(풍) 힐링워크숍** : 푸른 바다, 초록의 숲이 우거진 제주 자연 속에서 나의 감성을 되찾고 마음의 휴식과 위안을 얻으며 조직력 있는 팀워크를 기르는 워크숍 여행프로그램입니다.
· **행복한 수학여행** : 관광지를 쉴새 없이 돌면서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수학여행이 아니라 학생들이 행복해하고 평화로움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감성 충만 수학여행 프로그램입니다. 테마별로 그룹화하고 테마별 안내자를 배치하여 진행하며, 교육현장에서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획합니다.

주요연혁

· **2011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생태관광매니저 발굴 업무협약체결
· **2012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제주스타팜협의회와 업무협약
'2012한국관광의 별'예비후보
· **2013년** 탐라교육원과 업무협약
· **2014년** 지역주민과의 협력사례, '조천읍 선흘1리' 환경부 주관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지 선정
제주관광공사 후원, 힐링여행 팸투어 진행
· **2015년**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 숲학교' 업무협약
'2015제2회 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 우수 사회적기업상 수상
· **2017년**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어뮤즈(AMU:SE)' 프로그램 진행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하귀동남 1길 32-3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1-107호

인증일
2012-02-15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전화번호
064)702-6895

팩스
064)702-6897

주식회사
혼디

주식회사 혼디는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고용하여 소외된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의 2/3을 사회에 환원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물티슈 제조, 세탁 및 세척용 세제 · 화장지 제조 및 판매

주요상품

· **물티슈 일반형(사각)** : 천연소재로 만들어져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며, 일반펄프보다 3배 이상 마모강도가 세고 내구성이 뛰어난 물티슈입니다.
· **샤크린 파워** : 초강력세제로 소량의 양으로도 찌든 때, 혈흔, 묵은 때를 말끔하게 세척하고 표백됩니다. 은은한 오렌지향이 나며 살균탈취 성분이 강합니다.
· **물티슈 크로스형(롤 및 사각)** : 천연소재로 만들어져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며 일반 펄프보다 3배 이상 마모강도가 세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홀구멍이 있어서 물과 오일 등에 흡수 속도를 높여줍니다.
· **샤크린 세제** : 실속 있는 세제로, 샤크린에 물 3~20배를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특히 병원, 호텔 등의 침구에 묻어있는 혈흔과 오일 등의 세척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정비복의 기름때 세척에 효과가 크며, 특수 분해 성분으로 기름때 분해제거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연혁

· **2009년** 5월 15일 설립
· **2009년** 제주도지정 장애인기업 지정
· **2012년** 사회적기업 인증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남8길 220-25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2-016호

인증일
2012-04-30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지역사회공헌형

홈페이지
www.saengdr.com

전화번호
064)783-6145

팩스
064)784-6145

생드르
영농조합법인

생드르 영농조합법인은 제주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체로서 밥상·농업·생명살림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민의 사회적 제 권리 지킴, 농산물의 지역사회 기부,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익사업도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드르'란 살아있다는 뜻의 한자 '生'과 넓게 펼쳐진 들판을 뜻합니다.

제주도내 친환경 농업생산자 단체인 '흙살림 제주도연합회'와 '한살림제주 생드르연합회' 유통사업단으로 흙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친환경 농산물·가공식품 생산 및 유통, 제주지역 친환경 학교급식 제공

주요상품

- **감귤즙** : 제주산 무농약 감귤에 정제수를 넣지 않고 오직 감귤 그대로 담아낸 음료입니다. 無향료, 無색소, 無보존료로써 첨가물도 넣지 않았으며 비농축 100% 과즙으로 껍질째 함께 착즙하여 영양이 더욱 풍부합니다.
- **당근즙** : 제주산 무농약 당근에 정제수를 넣지 않고 오직 당근 그대로 담아낸 음료입니다. 無향료, 無색소, 無보존료로써 첨가물도 넣지 않았습니다.

주요연혁

- **2000년** 조천읍유기농업연구회 내 '생드르영농조합법인'설립
- **2002년** '흙살림제주도연합회'출범
- **2004년** 무 말림 사업 시작
- **2006년** 제주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준공 / 다진 마늘 생산
- **2010년** 감귤 가공 사업 시작, 제2 가공 건물 준공
- **2011년** '한살림제주 생드르연합회'출범, 제3 가공 건물 준공
- **2013년** 2013제주경제대상 사회적기업 특별상 수상
- **2014년**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파트너5곳 안에 선정
- **2015년** 농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우수사례평가서 전국 3위 선정
- **2016년** 제주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업체(3권역) 선정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106-10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2-059호

인증일
2012-09-04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www.jejusj.com

전화번호
064)711-6788

팩스
064)711-6799

주식회사 서정

㈜서정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건물관리 전문회사로 성장하려는 비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회보호 시설, 독거 노인들에게 방역 및 청소 등 무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회공헌과 상생을 실행하는 기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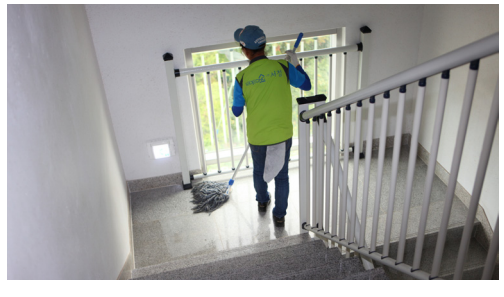
- 위생관리 용역업, 경비업

주요상품

- **경비 및 시설용역** : 도난, 침해 행위, 파괴 행위 예방 및 저지, 방범, 화재 및 재해 예방, 건물 내외 순찰 및 질서유지, 각종 시설물 관리 등
- **주택 관리업** : 위탁 관리, 인력 관리, 회계 관리, 안전 관리 등
- **방역 및 소독** : 전문 방제교육 수료한 방제요원의 진단, 최신장비를 사용한 확실한 방역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건물 외벽청소** : 외벽복원, 외벽 유리창 클리닝, 아파트 유리창 클리닝, 간판 청소 및 간판 주변 정비
- **보안 문서 파쇄서비스** :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현장에서 파쇄하여 정보유출 차단

주요연혁

- **2011년** 제주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현대로지엠(주)제주지사와 업무협약
- **2012년** 위생관리 최우수 등급, ISO9001(품질)/14001(환경)인증
- **2013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서정 사옥준공
- **2014년** LH-(주)서정 동반성장 및 공정사회 협약
- **2015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청렴, 윤리경영 협약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표창(지역사회발전기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표창(장애인복지증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41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2-060호

인증일
2012-09-04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www.ecosorang.or.kr

전화번호
064)732-2288

팩스
064)732-2268

사회복지법인정혜원
에코소랑

에코소랑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특성과 시장 환경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다양하고 개별화된 직업훈련 및 직업적응훈련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통합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수익성 증대와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을 유도하여 근로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화장지 제조 및 도소매

주요상품

· **두루마리 화장지** : 무형광, 친환경 제품임. 잉크와 화학물을 사용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NO형광증백제!, 無형광 원단 사용함, 향처리 하지 않아 자극이 적음.
· **발효과실원(오미자/복분자/백년초/감귤/매실)** : 발효과실원은 우리 몸에 좋은 과실을 발효시킨 천연 발효효소임. 정제수와 화학첨가물 없이 최소 5개월간 항아리 전통 숙성 방법으로 발효함.
· **허브차 허비안HERBIAN(스피아민트/페퍼민트/레몬밤/파인애플세이지/애플민트/로즈마리)** : 에코소랑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여 자연건조한 제품임. 무농약 인증 허브 100% 사용하여 제조됨.

주요연혁

· **2012년** 표선고등학교와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등 업무협약
· **2013년** 제주도내 각 공공기관 공급 화장지로 조달공급 계약 체결
· **2014년** SK이노베이션에서 전기차 기증전달
· **2015년** 2015제주경제대상 사회적기업 특별상 수상
· **2016년** 올레 7-1코스 내 장애인카페 '꼬라지오(coraggio)'1호점 개소
· **2017년** 레츠런파크제주 내 장애인카페 '꼬라지오(coraggio)'2호점 개소
서귀포시청사내 장애인카페 '꼬라지오' 3호점 운영사업자로 선정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랑곶6길 6 세븐빌딩 502호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2-142호

인증일
2012-12-14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www.dubler.co.kr

전화번호
064)744-9911

팩스
064)744-9912

더불어
주식회사

"청정한 제주의 순수함으로 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청정제주에서 자란 과일과 야채를 이용하여 좋은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제주특산품 및 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주요상품

- **한라봉 꿀차** : 제주지역 특산물인 한라봉을 이용하여 만든 차로 상큼한 향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 **오미자차** : 오미자는 약재로 사용 할 만큼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쓴맛·단맛·신맛· 짠맛· 매운맛 5가지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차입니다.
- **청귤차** : 노랗게 익기 전 귤인 청귤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음료로, 청귤만의 감미로운 맛과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레드키위잼** : 청정제주에서 자란 잘 익은 레드키위만을 선별하여 새콤달콤한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은 잼입니다.
- **무화과잼** : 청정제주에서 자란 잘 익은 무화과를 선별하여 만들었습니다.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부드럽고 달콤한 잼입니다.

주요연혁

- **2011년** 오픈마켓 판매 개시(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 **2012년** 중국 제남박물관 참석/ 수눌음일자리센터 참여 협약서
- **2013년** 제주지역 사회적기업박람회 참가/ 여성기업 지정
- **2014년** 행복나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대상협력사 선정
- **2017년** 신세계백화점, 사회적기업 제품 추석 선물 세트로 판매
  '2017제돌이워킹 챌린지' 참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능산길73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3-001호

인증일
2015-03-18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www.jejugreen.com

전화번호
064)727-9889

팩스
064)751-9779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영농조합법인

유기농 영귤을 생산·재배·제조·가공·유통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소비자분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위생관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믿을 수 있고 건강한 제품을 전달하고자 하는 김순자 대표의 마음을 담은 유기농영귤차와 영기농 영귤과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유기농 영귤 재배 및 가공판매

주요상품

- **유기농 영귤차** : 청정제주 자연의 태양광선, 해수의 향기를 듬뿍 받으며 생산된 유기농 영귤을 껍질 통째로 슬라이스하여 유기농 설탕을 혼합시킨 영귤차입니다.
- **유기농 영귤과즙** : 유기농으로 생산된 영귤을 껍질 통째로 착즙하였습니다.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 등 무첨가 영귤과즙이며, 손쉽게 드실 수 있도록 1회 분량으로 담았습니다. 생수에 혼합하여 드시면 피로회복 및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으며 식초 대용으로도 사용가능합니다. 과피까지 통째로 착즙하여 비타민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제품입니다.
- **소스·샐러드 드레싱** :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소스 또는 샐러드 드레싱, 물에 희석해 드실 수 있는 유기농 제품입니다.
- **말리제과** : 장애인기업과 협력사업으로 만든 신규브랜드입니다. '말리'는 제주도 방언으로 산천초목의 지붕이란 뜻으로 제주도 산천초목에 나는 과일들을 이용하여 만든 반건조 과일 브랜드제품입니다.

주요연혁

- **2010년** '2010 동경 건강식품 소재 전시회' 참가
- **2012년** 춘계중국수출상품교역회 참가/서울국제식품산업전(2012푸드위크)참가
  제11차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
- **2013년** 제15회 전국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 금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
-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진흥공단제주본부 주최 수출 첫걸음 인센티브 사업자 선정
  /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은상 수상
- **2015년** 2015상해 식품박람회 참가
- **2016년** 2016상해 식품박람회 참가
- **2017년** 현대백화점 사회적기업 설 선물세트 판매 참가

한울
영농조합법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조로78
작업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남8길127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3-005호

인증일
2013-09-09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전화번호
064)783-0886

팩스
064)783-0877

한울 영농조합법인(한울공동체)은 농촌의 권익보호를 위한 마을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친환경유기재배 농가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출발하였으며, '한살림'의 생산자 조직으로서 생명농업을 통해 자연을 지키고 우리의 밥상을 지키며, 더불어 사는 생명 세상을 나누는 기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

- 농산물 생산 및 가공, 판매

주요상품

- **친환경유기농산물 재배·가공** : 한울공동체는 친환경으로 연중 20여가지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자체 선별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소포장 및 1차 가공, 출하함.
- **제주에서 자란 친환경농산물** : 브로콜리, 대파, 월동무, 월동배추, 겨울감자, 마늘, 단호박, 가지, 애호박, 참외, 풋고추, 찹쌀보리, 콩나물콩, 감귤류.
- **제주에서 자란 가공품류** : 찰보리쌀, 미숫가루.
- **제주에서 자란 말림류** : 무 말림, 시래기, 가지 말림, 애호박 말림, 건 고추.
- **국산사료 한우사업** : 소비자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모아 생산지에 암송아지를 구입해주는 방식으로, 한울공동체에서는 입식된 암송아지를 지역의 농업부산물을 이용하여 자급형 방식으로 정성껏 키우는 사업임.
- **농가체험 프로그램** : 보리피리 만들기, 미숫가루 만들기, 참외 수확, 여름 생명평화 캠프, 고구마수확 및 굽기, 감귤수확, 국산사료 한우체험.

주요연혁

- **2011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국산사료한우 기금전달식' (한살림성남용인생협과 공동)
- **2012년** '2012생명평화 정월대보름 보리밟기' 행사 개최
-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
- **2014년** 한살림제주생협과 '자급사료 한우 책임소비 약정 협약식'
- **2015년** 김장 나눔 큰잔치 개최 (한살림제주소비자협동조합,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금등4길 149-50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3-006호

인증일
2013-11-08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http://jejusallim.com

전화번호
064)796-5585

팩스
064)796-558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살림

"농업회사법인(주) 제주살림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원자재는 제주산(OR 국내산)만을 사용,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화학첨가물을 배제하고, 부득이 첨가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천연첨가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재료 직접 생산 등 비용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수익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공유합니다. 청정제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역농민들과 협력, 개발·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직원 복리증진,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함께 나누고 연대하는 작은 움직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

· 친환경 로컬푸드 식품 가공업

주요상품

· **제주 항아리콩나물** : 일체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소독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주전통 항아리와 제주삼나무로 만든 시루에서만 생산식감이 쫄깃하고 맛이 고소합니다.
· **청국장** : 일체의 수입산을 사용하지 않으며 천일염만을 원재료로 사용합니다. 볏짚을 이용해 가마솥에 옛날 전통방식으로 만든 생청국장, 건청국장이 있습니다. 짠맛이 강하지 않고 뒷맛이 깨끗하며 냄새가 적고 먹기 좋은 제품입니다.
· **참이든 두부** : 제주에서 경조사 때 먹는 마른두부로 일반 두부보다 딱딱한 느낌이지만 그냥 먹기에 좋습니다. 열/냉각처리를 하지 않아 냉장보관 할 시 유효기간이 2~3일 정도입니다. 100% 제주산콩(or 국내산)과 제주산 무농약콩으로만 만들며, 일체의 화학제품 배제합니다. 無 소포제 · 無 유화제 · 無 화학응고제 (천연응고제 사용).

주요연혁

· **1999년** 콩나물 재배 시작
· **2000년** 품질인증 획득
· **2002년** 무농약인증 획득
· **2006년** 제주경실련 경제정의기업상 수상
· **2012년** 〈농업회사법인(주)제주살림〉 (자본금 1억) 설립
· **2014년** 두부 판매/ 농림축산 식품부 지정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예비인증2015년 장류(된장, 고추장, 청국장)와 절임식품, 엄선된 지역농민 생산품 판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258-28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3-007호

인증일
2013-11-08

사회적목적실현유형
혼합형

홈페이지
www.moolmaru.co.kr

전화번호
064)796-4764

팩스
064)796-4737

제주물마루된장학교
영농조합법인

'사랑, 나눔, 실천. 삶의 그림을 혼자보다는 우리함께'
제주, 그 옛날, 척박한 토양과 사나운 바람의 섬 제주에서 생명을 연명하기도 버거웠던 선조님들은 된장 없이는 밥상을 올리기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던 그 시절, 된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질긴 생명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도 있지요. 하지만 손수 친환경 밭벼를 심어 미생물 가득한 볏짚을 토대로 손메주를 만들어 2년정도 숙성시킵니다. 바람과 햇살에 맡겨 옛날 전통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주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손수 생산·가공하며 바른먹거리 실천에 앞장서는 착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

- 웰빙 전통식품(된장 등) 개발, 고추장 등 체험교실 운영

주요상품

- **제주콩된장** : 유기농 콩을 재래식방식으로 항아리에서 1년이상 숙성시켜 메주와 간장을 분리해 만든 전통재래식 된장입니다. 제주산 무농약콩 100%.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감귤고추장** : 새콤달콤한 제주감귤과 매콤한 태양초고추와의 절묘한 만남으로 새콤달콤 맛있는 제품입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고춧가루, 찹쌀가루, 감귤효소, 메주가루, 식염, 엿기름 등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 **제주콩간장** : 유기농 콩을 재래식으로 항아리에서 1년 이상 숙성시켜 메주와 간장을 분리한 전통재래식 간장입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청국장이 들어있는 감귤진피쌈장** : 새콤달콤한 제주감귤과 몸에 좋은 청국장, 제주산 마늘과 양파가 들어가 있는 영양가가 높고 맛있는 쌈장.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통된장, 청국장, 전통고추장, 무농약 제주산감귤진피, 전통조청, 제주산 마늘과 양파 등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주요연혁

-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우수체험공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상
- **2012년** 신지식농업인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가공부문)
  재가복지서비스 운영지원 업무협약체결-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 **2014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스타팜(star farm)지정
  LOHAS우수상품 인증 /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특별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제주전통식품 특성화 사업자 선정
- **2015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주요사업내용

- 친환경 식생매트, 탄성 포장

주요상품

- **친환경코코넛섬유 식생매트** : 산책이나 등반시 편안한 보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끄럼방지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이 전혀 없는 친환경원료를 사용하여 상하좌우가 연결되어 일체가 되어 안정감을 줍니다. 장시간 보행시에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 **탄성포장재** : 충격흡수성이 우수하여 무릎관절 보호 및 피로가 적습니다. 색상선택 및 두께를 조정할 수 있고. 현장시공으로 마감성이 우수하며 이음새가 없습니다. 내구성이 강하며 내마모성, 내한성이 우수합니다. 동절기 결빙현상이 없고 기온변화에도 변형이 없습니다. 부분보수가 용의하며 기존 보도시설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주요연혁

- **2003년** 공공기관 재활용 우선구매 품목 선정
  제10회 한라환경대상 자원재활용부문 대상
- **2006년** 환경부장관 표창
- **2008년** 제주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 **2013년** 제주지식재산센터 창출지원사업 업체 선정 /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 수상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2015고용우수기업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172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3-008호

인증일
2013-12-17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www.hallaenv.com

전화번호
064)721-0025

팩스
064)721-3303

주식회사
한라환경

㈜한라환경은 폐타이어를 수거·재활용하여 탄성바닥재와 블록, 그 외에 친환경 야자수 식생매트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환경파괴의 주범인 폐타이어를 재활용하고자 ㈜한라환경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관리로 고객의 요구에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자전거 여행 시스템 운영

주요상품

- **제주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 : 제주시내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9개동의 90대의 자전거 관리
- **자전거 특화교육** : 도내 초등학교 대상 자전거 특화교육을 통해 제주도 일주 하이킹 진행
- **자전거행사** : 자전거 관련 축제, 행사, 견학 등의 행사를 기획·진행
- **어린이안전교육** : 초등학교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함. 연간 1,500여명 교육함
- **자전거 하이킹** : 학교, 기업, 동호회, 단체 등의 자전거 하이킹 프로그램 진행

주요연혁

- **2015년** 2015 어린이안전모 나눔캠페인 진행
- **2015년** 제주소셜투어 서포터즈 행사 개최
- **2016년**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진로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 **2017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아빠와 자전거로 떠나는 미술여행'진행
- **2017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주최 교육근로장학기관 선정

주식회사
푸른바이크쉐어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4길 7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4-001호

인증일
2014-03-13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www.purunbike.com

전화번호
064)721-0333

팩스
064)721-0331

㈜푸른바이크쉐어링은 제주도의 교통, 환경,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자전거 공유, 안전교육, 친환경 여행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1길 4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4-003호

인증일
2014-06-30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www.elin.or.kr

전화번호
064)752-2299

팩스
064)752-0078

사회복지법인 창암복지재단
엘린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꿈꾸며 근로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직업교육, 훈련, 취업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직업안정을 통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기반과 지역사회에서의 안전한 사회참여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숙박·여행·청소 용역 사업

주요상품

· **호텔 엘린** : 비즈니스 고객, 관광객을 위한 객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고객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장애인·노약자 편의 객실도 마련되어있습니다. 호텔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며, 주요 관공서가 밀집된 곳입니다. 제주국제공항과 5분여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장애인 편의 객실 마련, 장애인 편의 서비스 제공, 제주시 숙박위생점검 선정.
· **엘린 클린** : 건물위생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최첨단 장비와 기술력 보유로 고객의 자산 가치를 한층 높이며 친환경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친화적·인간중심형 추구합니다. 대리석/화강석 복원 및 광택, 바닥줄눈시공, 바닥왁스, 아파트빌라 등 건물청소 등

주요연혁

· **2012년**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합동결혼식 후원 협약체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 체결/ 제주시 숙박위생점검 최우수 등급 선정
·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튼튼한 관광제주만들기 캠페인숙박분야 최우수업체선정/ 청소용역
㈜트라이앵글 건물관리 기술제휴 협약/ 제주영지학교 산학협력 체결
· **2014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2014장애인고용촉진대회 국무총리표창
· **2015년** 제주근로자건강센터 업무 협약 체결 / 연동119센터 업무협약체결/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업무협약 체결
· **2016년** 한국중부발전(주)제주화력발전소 업무협약 체결
· **2016년** '2016전국위생관리기능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농업회사법인
㈜제주허브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한라대학교하이테크1106호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4-004호

인증일
2014-11-19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www.jejuherb.kr

전화번호
064)756-0110

팩스
064)744-1130

㈜제주허브는 청정제주의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주력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무농약 감귤껍질을 그대로 이용한 오티아 제주귤피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0대 과일 중 하나인 감귤은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하여 귤껍질 말린 것을 진피(귤피)라 하는데 과일중에는 감귤에만 있는 비타민P(헤르페르딘)는 한약재로 쓰이는 것입니다. 오티아는 라틴어로 안락하고 편안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티아의 제품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주의 자연을 통해 안락한 공간에 나만의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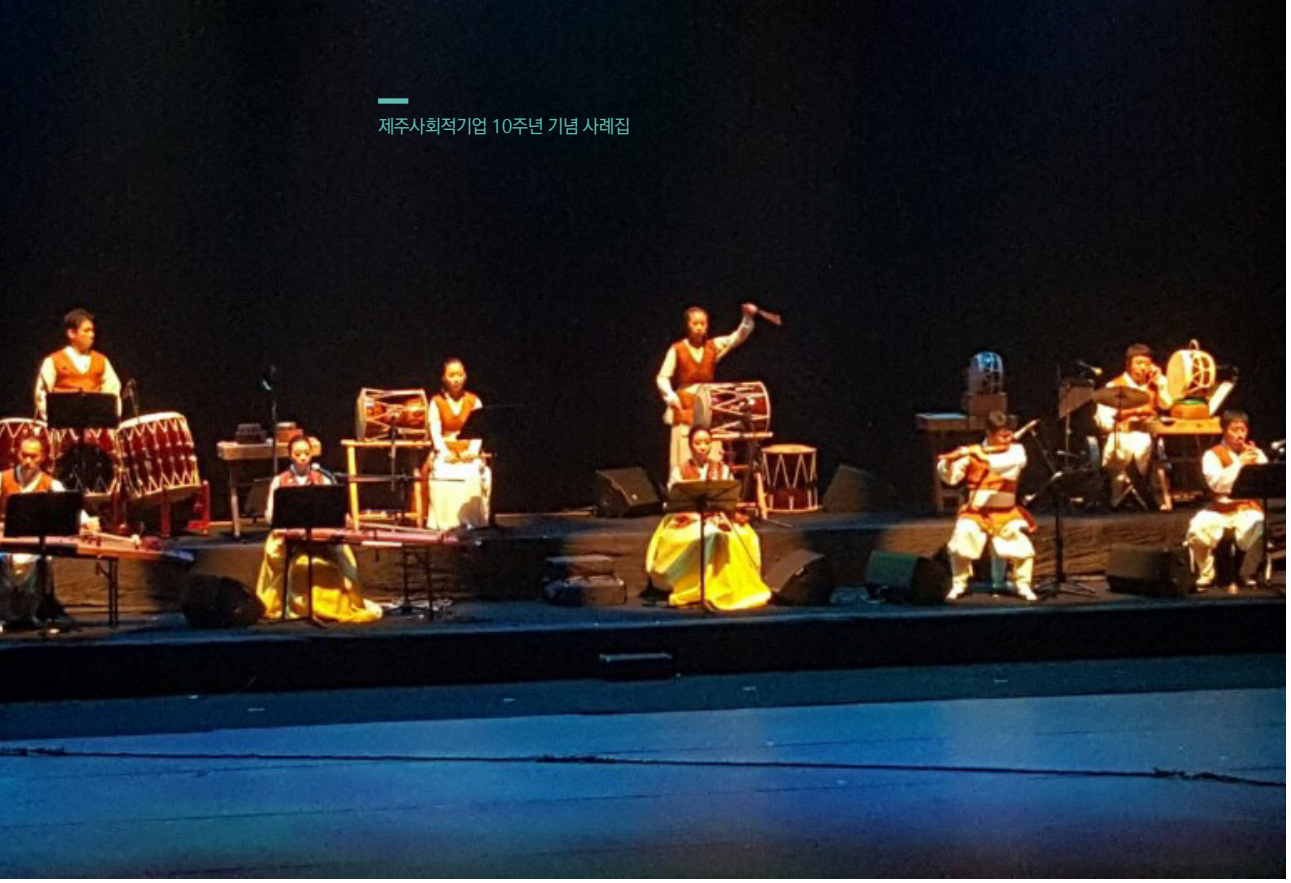
· 제주 귤피차 가공 제조

주요상품

· **제주오티아귤피차** : 청정제주에서 자란 친환경감귤과피 100%만을 사용하며 쉽게 음용하기위해 티백차로 개발한 것입니다. 비타민P는 모세혈관을 보호하여 고혈압예방, 피부미용, 미백효과, 나린진성분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 **제주조각건귤** : 청정제주에서 자란 감귤과육을 그대로 슬라이스하여 아무런 첨가물없이 건조한 천연고농축 비타민으로서 어린이 영양간식이나 어른들의 간식에 안성맞춤입니다.
· **감귤그대로 초코화이트** : 청정제주 감귤을 슬라이스 건조한 제품에 화이트 초콜릿을 가미한 상품으로 화이트초콜릿만의 깨끗하고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어 간식용으로 추천합니다.
· **자연드레분말세트(감귤/백년초분말)** : 제주산 감귤과 백년초를 파쇄하여 제습건조기에 건조 후 다시 분쇄하여 고운입자 크기로 분말제조한 제품입니다.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며 가정에서는 분말 적당량을 그대로 드셔도 되며 우유나 요구르트, 꿀과 같이 드셔도 좋은 분말입니다.

주요연혁

· **2013년** 제주사회적경제 학술대회 체험홍보관 참여
· **2015년** 제주유나이티드 '고치 가게마씸' 참가
제주지식재산센터 '2015년도 IP Scale-Up 특허·브랜드·디자인 지원사업' 선정
· **2016년** 제2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
· **2017년** 제3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승천로 8, 지하층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4-005호

인증일
2014-12-16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전화번호
064)756-0105

팩스
064)702-0105

사단법인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2002년 전통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실력있는 젊은 일꾼들이 모여 '사물놀이 하나아트'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어, 가장 한국적이고 제주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한 공연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창작활동으로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단법인 국악연희단하나아트'라고 명칭을 변경하여 제주의 공연예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문화 예술 공연 사업

주요상품

- **바람유희** : 군웅덕담과 서우제 소리를 주제로 한 「바람유희」 '군웅(조상신)을 즐겁게 놀게 하는 굿'이라는 뜻을 가진 군웅덕담과 무가인 제주민요 서우제 소리를 대북, 모듬북, 징, 장구 등 전통 타악기와 피리, 대금, 태평소 등의 선율악기로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편곡하여 연주한 곡. 우리 삶의 뿌리인 조상신에 대한 예를 갖추고 함께 즐기고 놀자는 의미를 담은 작품.
- **해녀노래/오돌또기** : 해녀노래는 제주해녀들이 물질을 하기위해 바다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부르던 노동요로 해녀들의 힘든 일상을 노래로 표현한 곡. 오돌또기는 남녀간의 사랑이야기와 함께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가사에 담아부른 제주민요.
- **절석놀음** : 제주어로 파도를 뜻하는 '절'과 제주 무속장단의 분류 명칭인 '석'을 합성하여 만든 제목으로 제주 전통 무속악기인 설쇠, 대영, 울북에 장구와 대북의 연주가 어우러져 제주적이면서 현대적인 느낌의 역동적인 타악 작품.
- **상모판굿** :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 타악기인 꽹과리, 장구, 북, 징의 서로다른 소리들이 밀고 당기고 화합하는 호흡을 통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짧은 시간안에 극적 긴장감과 감동을 줌. 또한 빠른 속도로 상모를 돌리며 연주까지 동반하는 농악적 기예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명과 탄성을 불러일으킴.

주요연혁

- **2013년** '2013국악연주외 通' 개최
- **2014년** 제주영지학교 공연 / 동제주복지관 조청 구좌사랑 국악콘서트 개최
'하나아트 국악연희교실' 운영
- **2015년** 국악나눔콘서트 '통(通) – 투게더 온 국악((Together ON Gugak)개최 / 혼디모앙 문화예술 봉사단 10주년 기념정기공연 개최 / '2015소나무 숲 국악콘서트 휴(休)'개최 /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명나는 어버이잔치'공연
- **2016년** 4·3 68주기 4·3문화예술축전 찾아가는 현장위령제·노형해원상생굿 공연 / '제6회 서귀포 봄맞이축제' 공연 / 중국 닝보시 '한·중·일 청년문화교류공연' 공연 / '2016 아트&비지니스 1차 결연'사업 결연참여
- **2017년** '풀어 풀어 풀어 내자 허쉬판 굿' 공연 / 시카고제주도민회와 한인문화회관 공동주최 '돌하르방 야외음악회' 공연 / 서귀포김정문화회관 우수작품 레퍼토리 공연 퓨전음악콘서트 '바람의 섬'공연/ 서귀포시 숲 속 힐링 음악회 '쓰담쓰담' 공연 / 메세나운동의 한 형식 '제주기업-문화예술단체 매칭 그랜트'사업 결연 참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3길1 2층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4-006호

인증일
2014-12-16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www.jejuysm.kr

전화번호
064)752-4547

팩스
064)747-4547

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연구원

"아름다운 영상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사)제주영상문화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소중한 제주도의 자연, 역사, 문화를 영상으로 기록·보존함은 물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원들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영상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산업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성장산업입니다. 또한 문화산업은 도시 재개발 및 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 사례가 연구되고 있으며, 쇠퇴해가고 있는 도시지역의 재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제주영상문화연구원은 제주도의 가치를 높이는 영상산업, 나아가 문화산업의 횃불을 밝히는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주요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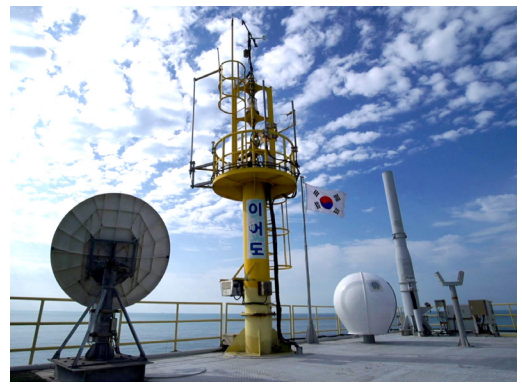
· 홍보 동영상 등 영상제작

주요상품

· **홍보동영상** : 기업, 학교, 관공서 등의 특징을 살려 최고의 품질로 홍보동영상을 제작.
· **외주프로그램 제작** : 정규 및 특집프로그램 외주 제작을 통해 지역영상 제작인들의 방송제작 참여 기회 확대.
· **행사·공연기획** : 문화예술공연, 국제행사 등 다양한 테마의 행사를 기획·시연.
· **지역영상문화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 영상산업의 발전과 명실상부한 산·학·연 공동연구의 장 제공.
· **지역 이벤트 축제의 컨설팅 및 진행** : 품질 고급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행사 연출.
· **청소년 방송반 활동지도 및 시스템 정비** : 영상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학생들에게 꿈과 기능을 전수.

주요연혁

· **2012년** 제주영상위원회 MOU체결
· **2013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족기업 협약서 체결
· **2014년** 제주경제문화연구원 『사회적경제육성』을 위한 협약서 체결/한라일보 MOU체결/제주대학교 가족기업 협약서 체결
·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R&D)사업 협약체결 / 소규모요양시설 방문 '36.5 어울림 한마당'공연
· **2016년**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맞춤형 청·장년 여성전문교육지원사업 협약서 체결/ '10월의 문화가 있는날 행사' 프로그램 진행 / '2016제주무형문화페스티벌' 진행 / 직장 방문 문화가 잇는 날 행사 '국악콘서트 그룹 제주 락(樂)'공연 진행 / '바람&바람 페스티벌 (Wind&Wish Festival)'진행
· **2017년** 재일코리아성악앙상블 초청 '4.3 평화음악제' 개최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덕지4길 21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4-007호

인증일
2014-12-16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www.ollechan.co.kr

전화번호
064)743-1396

팩스
064)743-0505

제주콩나물
영농조합법인

현대인의 웰빙 붐으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객을 가족이라 생각하며,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듯이 곧은 신념과 바른 양심으로 고객의 건강과 우리 고유의 맛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약이나 생장촉진제가 들어가지 않은 제주청정 콩나물을 드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산소처럼, 여러분의 식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식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친환경 콩나물 및 숙주나물 생산, 판매

주요상품

· **산소콩나물** : 無농약, 無성장촉진제, 수입콩보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제주산 콩 100% 사용
· **제주산 숙주나물** : 無농약, 無성장촉진제, 100%제주산녹두사용. 아삭한 맛이 살아있는 제주산 숙주나물! 100% 제주산 녹두만을 사용하며 성장촉진제는 사용하지 않음.
· **제주콩나물** : 오동통통 아삭한 맛이 살아있는 청정제주의 맑은 물로만 재배된 건강한 먹거리. 제주산 콩만을 사용하며, 유전자 변형콩을 사용하지 않음.

주요연혁

· **2006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농약재배 인증
·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제주경제대상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 표창
· **2015년** 제돌이캐릭터(시와월드 제작) 디자인상품 출시

주소
노형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46
오라점 : 제주시 오라로61 1층 (섬채 : 제주시 오라로61 2층)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4-008호

인증일
2014-12-16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마트) http://nanummartjeju.kr
섬채) http://www.sumchae.kr

전화번호
064)743-2486

팩스
064)745-2486

행복나눔마트
협동조합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제주지역 서비스업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역내 다양한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직원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입니다. 공동체의 발전이 곧 우리의 근거가 된다는 믿음으로, 지역내 다양한 공동체에 후원하는 등 운영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나눔마트를 노형점과 오라점 두개를 운영중이며, 제주특산물과 문화상품 전문 온라인·오프라인 쇼핑몰 '베리제주', 한식뷔페와 로컬푸드 식당'섬채', 바비큐전문점 '애월바베', 대기업 프랜차이즈 중심의 획일화된 편의점 시스템과의 차별화를 선언한 독립편의점 '콘쿱'까지 6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슈퍼마켓, 온·오프라인쇼핑몰, 로컬푸드 식당

주요상품

- **행복나눔마트 노형점** : 직원들이 직접 출자금을 모아 만든 행복나눔마트 협동조합1호 사업장입니다. 각종 신선한 농·수·축산물은 물론 다양한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행복나눔마트 오라점** : 행복나눔마트 2호점으로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로좋은가게'입점해있습니다. 또한 질좋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빵을 만드는 '행복나눔베이커리'가 있습니다.
- **로컬푸드 한식뷔페 섬채** : 합리적인 가격에 제주 식재료 및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한식뷔페 식당입니다.. 먹는 이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지역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 **제주생활문화상품 쇼핑몰 베리제주** : 제주의 먹거리와 생활문화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베리제주.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작해 2016년에는 오프라인매장도 열어 제주에 거주하는 작가들이 만드는 톡톡튀는 감성의 다양한 생활/문화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로컬푸드레스토랑 애월바베** : 제주특돼지와 해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로컬푸드 음식점으로 애월 해안도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의 의지를 담은 소규모 창업지원모델의 시험판이기도 합니다.
- **독립편의점 콘쿱** : 기업형편의점 시스템에서의 독립, 세분화된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일종의 편집숍으로서의 독립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제주도의 특성을 담아낸 지역/지역민 친화적인 편의점입니다.

주요연혁

- **2012년**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설립
- **2013년** 직원협동조합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설립/ 행복나눔마트 노형점 오픈/ 이어도자활 반찬사업단 '맛드림'입점/ 행복나눔작은도서관 설립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우수사례 선정
- **2014년** 늘푸른노인전문요양원과 업무협약 체결/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업무협약 체결 / 사회적협동조합 하옳음과 업무협약 체결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2015년** 아름다운가게 나눔보따리 후원 / 설맞이 행복나눔꾸러미 독거노인 전달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 다솜발달장애인대안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제3회 협동조합의 날 부종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 추석맞이 행복나눔꾸러미 독거노인 전달
- **2016년** 제주특산물, 문화상품 온라인 쇼핑몰 '베리제주'오픈 / 행복나눔마트 오라점 오픈 / 설맞이 행복나눔꾸러미 독거노인 전달 / 아름다운가게 사랑나눔보따리 후원 / 아름다운청소년 이여는세상 '제주청소년문화카페 생느(NE)행'과 업무협약 체결 / 로컬푸드 한식뷔페 '섬채' 오픈 / 제주도우수고용기업 선정 / 제주시 2016우수사회적경제기업 선정 / 노형꿈틀작은도서관 개관 8주년기념 '제주시장 표창장'수상 / 로컬푸드 레스토랑 '애월바베'오픈 / 추석맞이 행복나눔꾸러미 독거노인 전달
- **2017년** 독립편의점 '콘쿱' 오픈 / 추석맞이행복나눔꾸러미 독거노인 전달 / '제8회 제주도자활기능경연대회' 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장상 수상

소담제주
영농조합법인

소담제주는 제주자연이 빚어낸 신선한 임·농산물을 직접 생산, 가공,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제주의 자연을 우리라는 공동체 바구니에 소담스럽게 담고 싶고 또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3000번길155-28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5-002호

인증일
2015-03-31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전화번호
064)792-3280-1

팩스
064)792-3282

주요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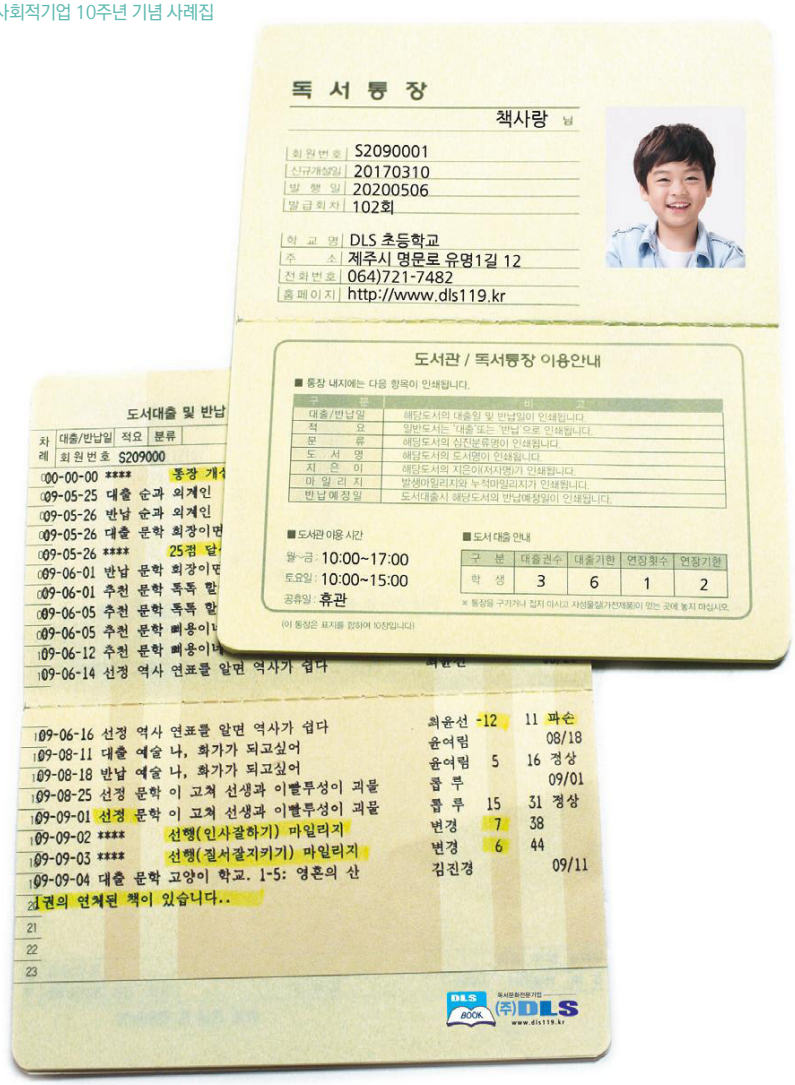
- 깐마늘 대북 협력 사업, 작물 생산, 유통 및 가공

주요상품

- **한끼산채** : 고사리에서부터 표고버섯, 취나물, 부지갱이, 곤드레, 무말랭이까지 건나물 6가지 2인이 먹기 좋은 양으로 소포장하였고, 나물볶음부터 반찬, 밥 , 축까지 활용할수 있는 나물요리법 레시피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제주한라산 고사리** : 한라산 기운을 받아 부드러운 고사리를 직접 채취해 삶고 말립니다. 예부터 제주산 고사리는 '궐채'라고 불릴정도로 왕실 진상품으로 올려졌습니다.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도 할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신체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 **제주 무말랭이** : 제주 환산토에서 재배된 월동무를 깨끗이 세척하고 채를 썰어 말린 무말랭이입니다. 노지에서 겨울철 매서운 해풍을 견뎌낸, 당분함유량이 높은 무를 사용합니다.
- **제주 취나물** : 제주애월의 쪽빛 바다 해풍을 맞고 자라 열량이 낮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합니다. 두뇌발달과 건강에 이로운 나물로 단백질, 칼슘, 인, 철분, 비타민 등이 함유된 알카리식품입니다.
- **제주 부지갱이** : 제주 애월의 부지갱이는 국내 최대의 주산지에 어울리는 맛과 향기를 선사합니다.

주요연혁

- **2013년** 친환경 유기가공 인증/ 월동채소 브로콜리 수매/ 햇마늘 700톤 수매2014년 현대홈쇼핑 방송 런칭계약 - '한끼 산채' 판매 / 산림청 공모사업 진행(임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 /한화앤리조트 월동무 납품계약 및 판매 /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식품기부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협약
- **2015년** 제주도 2015우수중소기업체 TV홈쇼핑 지원사업 선정 / GS홈쇼핑 '한끼 산채' 방송
- **2016년** '제3회 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 우수 사회적기업상 수상
- **2017년** GS홈쇼핑 '한끼 산채' 방송



주식회사
디엘에스(DLS)

㈜ DLS는 S/W 개발 및 보급, 도서관 관리시스템 구축 등 독서문화선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독서문화 전문기업입니다. 나아가 RFID기반의 미래형 도서관 솔루션 제공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동길 11-8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5-003호

인증일
2015-03-31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www.dls119.kr

전화번호
064)721-7482

팩스
064)721-7483

주요사업내용

· 도서·비도서(전자책, 교육용 교재) 및 컨텐츠 공급 사업

주요상품

· **도서소독기 시스템** : 강력한 자외선 소독 및 100% 천연 허브의 향균·살균·탈취로 새책·헌책 증후군 완벽 제거. 안전한 독서를 위한 기본방향·독서 환경위생 개선, 이용자 건강보호 및 청결 도서관리, 책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보호.
· **독서통장 시스템** : 책읽는 즐거움과 성취감,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해줌. 도서대출 반납· 독서이력·독서퀴즈 등 독후활동을 통한 다양한 포인트 지급함.
· **자동대출/ 반납시스템** : 자료실 내 RFID시스템 기반의 자동대출 반납기를 구축함으로써 사서의 개입없이 이용자 스스로 도서 대출과정을 수행.
· **도서관리 프로그램** : CS&Client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도서관리 프로그램”. MS SQL 및 My SQL Data-base를 지원하고 필드입력 방식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손쉬운 사용이 가**능함.**
· **도서 RFID 태깅작업** : 도서관 RFID 시스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리한 서비스를 지향하고 독서문화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음.

주요연혁

·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 **2012년** 출판(도서, 전자책, 오디오북)
· **2013년** 도서소독기 특허인증
· **2014년** 제주사회적기업박람회 참가 / 제주시사회적경제기업한마당 참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5-004호

인증일
2015-03-31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http://www.대유기업.kr

전화번호
064)702-4273

팩스
064)723-4273

주식회사
대유기업

저희 회사는 기계설비공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란 최대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이러한 목적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회사만을 위한 이윤획득이 아닌 근로자에게 양 질의 급여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윤획득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으로서 여성들이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회사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주요상품

·**기계 설비 공사업** : 산업용 보일러 판매 및 a/s, 배관, 히트펌프, 위생 설비와 공기조화 설비
·**시설물유지관리업** : 완공 이후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 보수·보강

주요연혁

·**2005년** 02월 24일 – (주)ks냉열 설립
·**2006년** 09월 05일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2010년** 04월 30일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2013년** 11월 30일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2015년** 03월 31일 – 사회적기업 인증
05월 26일 – ㈜대유기업 상호 변경
09월 03일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12월 30일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반환
·**2017년** 03월 30일 – 대표이사 변경
08월 03일 – 여성기업 인증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21,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13호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5-005호

인증일
2015-07-27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지역사회공헌형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
jejujedori

전화번호
064)725-7062

팩스
064)725-7063

주식회사
시와월드

㈜시와월드는 향토자원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관광자원 사업화하고 있는 향토문화커뮤니티 전문기업입니다. '꼬마하르방 제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돌이는 호기심 많고 실수도 많은 개구쟁이 제주 꼬마하르방입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씨 고운 제돌이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마냥 행복해 하는 캐릭터입니다. 돌하르방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환경에듀테인먼트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주한라봉, 제주말, 제주해녀, 제주흑돼지 등의 캐릭터를 제작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제주지역 기반 캐릭터를 활용한 향토문화 콘텐츠 제작

주요상품

- **제주꼬마하르방 제돌이** : 호기심도 많고 실수도 많은 개구쟁이 제주꼬마하르방 제돌이. 하지만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씨 고운 하르방입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제돌이입니다.
- **제주한라봉정령 봉봉이** : 작지만 야무진 한라봉 정령. 귀여운척하는 걸 좋아하는 봉봉이는 제돌이의 수호천사라고 말하지만 진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감귤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가끔 친구들에게 간식거리로 오해를 받는 슬픔도 있습니다.
- **제주낭만망아지 찰스** : 모든 일이 즐겁고 유쾌한 낭만 망아지 찰스. 기발한 장난거리를 항상 만들어 내며 먹을 것을 보면 급 흥분하지만 제니누나 앞에선 항상 멋진 척 무게를 잡는 찰스입니다.

주요연혁

-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제주지역본부와 공동마케팅 협약체결 /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 홍보 위한 업무 협약체결
- **2013년**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와 제돌이 캐릭터 활용 업무협약 / '2013년도 단편 콘텐츠제작지원 사업' 선정 /
- **2016년** '제주어 지키는 제돌이' 한국콘텐츠 진흥원 지원으로 제작 /'제주어 지키는 제돌이' 제주도내 유치원·아동센터 등 1만5천권 보급 / 다음카카오와 공동으로 스토리 펀딩함. / 제돌이와 함께하는 '예래 생태골든벨' 진행 / 추자도서 'JDC와 함께하는 제주어교실' 진행 / NHC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17년**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제주지역콘텐츠개발 공로) / 곶자왈공유화재단과 곶자왈보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17 제돌이 워킹챌린지' 진행, 제주도개발공사 후원 / '2017제주어보이스 콘테스트'개최 〈제라진 탐라수호대〉 성우 활동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57, 5층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5-006호

인증일
2015-09-22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지역사회공헌형

홈페이지
http://jefaco.kr/

전화번호
064)713-8224

팩스
064)713-2482

농업회사법인
㈜제주공방

제주공방은 1986년에 설립되어 란 종류를 심는 화분을 주 상품으로 개발하고 제작하여 왔습니다. 제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화산석과 그 분말을 이용하여 조각하고 형틀을 제작하여 수지와 배합한 제품이기에 원적외선의 방출과 음이온의 생성이 상당하여 인체에 유익하며 식물의 생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1995년 민속공예품 특산단지로 지정을 받아 제주의 민속적인 풍물을 형상화하여 창의적인 기념품들을 개발하여 왔고 신제품들을 개발하여 지적재산권 13종을 취득, 도로 및 조경용 대형 화분을 생산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제주마씸'의 회원 업체로 명실 공히 누구나 인증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2010년에는 어피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해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정낭 화분 및 관광기념품 판매

주요상품

- **물허벅 꽃병류** : 척박하고도 물이 귀하였던 외딴섬 제주. 이 제주를 떠 받쳐온 제주 여인의 강인함을 화산석의 표피 질감을 그대로 표현제작하였으며 허벅에 꽃을 꽂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만들어진 제품임.
- **화분류** : 통나무화분, 정낭화분, 덕판배화분, 절구 화분, 맷돌화분, 연자방아 화분, 용두암화분, 하르방화분, 물허벅 화분 등이 있음. 제주돌 관광기념품들은 제주의 순수성과 소박한 인정을 표현, 화산석의 표피 질감을 살린 것이 특징임.
- **캐릭터 인형류** : 엄마돼지, 신랑각시, 농부, 해녀숨비소리, 하르방사물놀이 등 제주의 돌하르방을 현실 감각에 맞추어 캐릭터화시켜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형상의 캐릭터 제품 50여종을 생산함. 핸드폰고리, 액자 등으로 활용가능한 제품들로 제작되었음.

주요연혁

- **2006년**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수상 /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 공예분야 은상 수상
- **2008년** 제주마씸 회원 업체 참여 / 다공질 화산석의 제조방법 특허 등록
- **2010년** 제주광어 브랜드 육성사업단과 기업지원과제협약 / 제주바다의 광어 및 방어피 가공사업 착수 /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 수상
- **2011년** 광어피를 이용한 관광상품류 등 10건 특허청 디자인 등록출원 / 신제품으로 개발된 캐릭터류 15종 저작권등록 / 제주정낭과 여물통을 결합한 화분 특허청디자인 등록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57, 5층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5-007호

인증일
2015-09-22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홈페이지
www.dolbom2012.co.kr

전화번호
064)721-1297

팩스
064)721-1298

주식회사
제주이어도돌봄센터

돌봄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돌봄의 미래를 개척하고 생산, 협동,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2012년 1월에 설립한 돌봄서비스 전문기업입니다. 한경면에서 구좌읍까지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엄혹한 복지환경에서도 따뜻한 돌봄, 나눔과 협동의 가치를 믿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산모서비스로부터 출발하여 제주지역 돌봄서비스의 건실한 주체로 성장할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주요사업내용

- 돌봄 사회 서비스

주요상품

- **방문요양** : 장기요양판정등급 1~5등급 어르신께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서비스 제공함.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소득기준 차상위이하이면서 장애인,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의 지역주민에게 월 24시간 혹은 27시간의 신변활동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평균소득150%이하이면서 장기요양판정등급 외 A, B어르신께 월 27시간 혹은 36시간의 활동보조, 일상가사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함.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 중위소득 80%이하 산모에 대하여 출산후 60일이내 서비스 제공.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함.

주요연혁

- **2012년** 제주대림요양병원과 서비스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교부 / 한국조리제과직업전문학교 상호협동 협약서 약정 / 수눌음일자리지원센터 참여협약서 약정
- **2013년** 영농조합법인 제주다와 업무협약 체결 / 100세이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토마토요양병원과 사회서비스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14년** 2013년사회서비스제공기관 품질평가 노인돌봄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산모신생아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 **2015년** 장기요양기관 대상 방문요양 부문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 **2016년** '2016제주경제대상' 특별상 수상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가족기업협약 체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곽지1길 26-7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6-001호

인증일
2016-02-29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홈페이지
www.jejudoll.com

전화번호
064)799-6222

팩스
070-4548-6222

주식회사
해피맘하우스

아이들과 예비맘, 단체가족여행이나 단체학생들이 친환경 원단과 오가닉 원단으로 제주형캐릭터 인형이나 여러 가지 인형을 만드는 곳입니다. 수학여행, 태교여행, 가족여행, 단체워크샵 등 모두 환영합니다. 뿐만아니라 학교에선 위클래스·창의적재량활동·사랑의 끈 잇기·동아리활동·방과후 학습 등이 가능하며, 관공서에서는 교육기부행사·직업체험행사, 기업체에서는 베이비페어·임신출산교실 등의 행사에서 인형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제주 관광 캐릭터 인형 제작, 판매, 발도로프 교육, 체험장 및 카페 운영

주요상품

- **창의적재량활동** : 친환경원단으로 체험진행(바느질방법, 매듭방법) 1~2시간 진행합니다.
- **기업체 체험** : 친환경 오가닉원단으로 진행하며 교육취미반부터 전문가반까지 진행합니다. (기업체 문화강좌 운영, 인형만들기반, 예비맘들과 아가맘을 위한 아기용품 및 출산용품 만들기 진행)
- **방과후, 위클래스, 창의적재량활동 등** : 친환경원단으로 체험진행하며 매시간 1~2시간 정도 학기별로 진행합니다.
- **체험장 운영** : 청소년단체 및 개인체험자 대상 체험장 운영합니다. 취미반, 강사반 운영(금액 상담후 결정), 수학여행, 청소년캠프, 단체 여행 등 진행 가능합니다.

주요연혁

- **2015년** '홍콩 선물용품박람회 2015' 참여
- **2016년** 2016우수사회적기업 최우수기업 선정
  '제주문환관광콘텐츠 마케팅&비즈니스 교류회' 참여
- **2017년** 2017제주사회적경제한마당 유공자 표창 수상

주소
사무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75, 3층
시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로 226-58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6-002호

인증일
2016-12-27

사회적목적실현유형
혼합형

홈페이지
www.coophn.co.kr/kor
쇼핑몰- www.hncoop.co.kr/

전화번호
064-752-5151

팩스
070-8147-5152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희망나래는 혼자 잘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것을 희망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하는 소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를 위해 '희망나래활동센터'와 발달장애인 분들이 함께 사는 집인 '희망나래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인쇄사업과 판촉물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래는 발달장애인들이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희망의 날개 짓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주요사업내용

- 인쇄, 판촉물, 장애인복지사업

주요상품

- **희망나래 PRINTING** : 전문 디자이너, 10년간 쌓은 노하우로 어떤 주문이든 척척! 집중력 높은 발달장애 사원의 세분화된 손길로 한층 더 높은 퀄리티의 출력물을 완성합니다.
- **명함·초대장·카드** : 출력부터 재단, 포장, 배송까지 발달장애 사원이 생산과정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 **희망나래 GIFT** : 기업, 단체, 관공서 등의 행사 기념품이나 홍보용 판촉물을 기획·제작하고, 가격과 대상에 따른 테마별 제품 라인업을 제시하여 공공기관우선구매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행사기념품** : 기업·단체·관공서 등의 행사 기념품이나 홍보용 판촉물 기획·제작합니다.

주요연혁

- **2017년** 제5회 협동조합의 날, 우수협동조합 경제부총리 표창 수상 /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내-일을 잡아라' 진행

주소
사무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7136 하귀농협하나로마트 2층
작업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남로65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7-001호

인증일
2017-05-10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지역사회공헌형

홈페이지
https://jejudadream.modoo.at
http://www.kindjeju.com

전화번호
064-772-1293

팩스
064-799-2293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영농조합법인 제주다는 무공해 친환경산업으로 녹색경제를 실현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회적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야외에서 자란 깨끗한 식물과 무농약으로 재배한 친환경 원재료를 가마솥에서 정성으로 덖어 만든 전통수제차를 생산합니다.
제주다는 지역순환 농업을 근간으로 하며 협업적 경제를 지향하고 친화적 식품제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공동체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요사업내용

- 침출차, 액상차, 화장품 제조 판매 및 농산물 도소매, 통신판매업

주요상품

- **조릿대차** : 제주조릿대를 야생에서 직접 채취해 가마솥 덖음과 숙성을 거쳐 만들어낸 수제 프리미엄차로서 청량감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유네스코 제주생물권보전지역 상표를 부여받았으며 현재 제주다 고유의 생산방식으로 특허 출원 중입니다.
- **귤피차** : 친환경무농약 인증을 받은 건강한 귤피만을 골라 제주다 고유의 고온건조 방식으로 가공해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향과 맛을 자랑합니다. 인공착향료가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 특히 젊은 여성층이 높은 선호도를 보입니다.
- **꾸지뽕차** : 제주곶자왈에 서식하는 제주야생 꾸지뽕잎을 원료로 만든 제품입니다. 재배 꾸지뽕잎에 비해 원료가격이 7배 이상 되는 청정야생꾸지뽕잎으로 만든 명품 수제차입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항암작용, 혈당강화, 고혈압, 기관지 천식 및 부인병 예방에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두충차** : 체지방 분해 및 배출효과가 있는 '아디포넥틴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비만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신장질환 개선, 골다공증 및 허리 무릎 등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주요연혁

- **2016년** 대표이사 변경 및 제품 리뉴얼
  제주테크노파크 청정헬스푸드지원사업 선정
  이마트 5개점·제주도내 하나로마트 4개점·G마켓 입점
  중국 국제 건강산업 박람회 참여 / 홍콩 Kham Hing Lung사 수출
  제주도내 주요마트 등 34개 판매점 입점 계약
  하귀하나로 마트와 '다문화가정 일자리창출 지원'공동사업 및 임대협약 체결
  아름다운가게 입점 계약/ 자활기업 인정 6차산업 인증
  제주테크노파크 디톡스 제품개발 우수상품 선정
  제주성장유망 화장품뷰티기업 종합기술지원사업 선정
- **2017년** 2017제주사회적경제한마당 유공자 표창 수상
  제6회 로하스박람회 2017 J-Detox 우수브랜드 어워즈 우수상 수상
  미국 수출 물량 1차분 조릿대차 발송
  독일A사와 조릿대차 OEM생산 계약 체결
  제주대학교 풀뿌리지원사업 2016년우수기업 선정
  SSG이마트 입점 업체 선정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남2길 20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7-002호

인증일
2017-05-10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홈페이지
www.jejuhope.com

전화번호
064)726-2405

팩스
064)722-1108

제주희망협동조합

제주희망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 상생을 가능케 하는 협업을 지속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삶에 희망이 되는 생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주희망협동조합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였고, 매출액 증대에 따라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하며 희망과 신뢰를 나르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주요사업내용

- 화물 운송 사업 및 식품 운반 사업, 식품 판매업(집단 급식소)

주요상품

- **기업물류** : 제주도외 자동화물 서비스 및 매일 제주·안성·경기를 왕복하며 기업물류센터 간 이동을 도와드립니다. 용달 화물운송서비스를 1톤차량을 다수 확보하여 작은 화물도 실속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탁운송** : 고객의 요청에 의한 맞춤운송서비스이며 희망나르미 서비스는 매월 제주도 전지역 4천여 가구에 정부양곡을 배송하여 주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임신부 출산부 및 영유아의 올바른 영양섭취를 위하여 실시되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진행중입니다.
- **이삿짐센터** : 전국이삿짐서비스.
- **한살림 생협통합물류 연대사업** : 생태유아공동체 소속 어린이집 및 일반어린이집, 일반조합원 지역공급 위탁사업을 진행합니다. 제주도내 한살림매장 물품 배송사업, 한살림연합물류센터와 제주간 도외물류 운송사업을 진행합니다.

주요연혁

- **2011년**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사회적일자리형 수눌음배송사업단 창설
  제주시 수급권 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대한 정부양곡 배송 위탁계약 체결
- **2012년**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역공급위탁 사업 계약 체결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시장진입형 수눌음배송사업단 전환
- **2013년** 제주도 전지역 정부양곡배송위탁 계약체결 / 제주도전지역 경로당양곡배송 위탁계약체결 / 제주희망협동조합 자활기업 창업
- **2014년** 희망이삿짐센터 창설
- **2015년**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운송 위탁계약체결 / 제주도내 사회적경제 물류 활성화 MOU체결 / 자활기업 희망로지스 사업자 조합원 가입 /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 협회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지원 사업'수행업체 선정 /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제주도 매장배송 운송 용역 계약 체결 / 서귀포시 보건소 영양플러스 수행업체 선정
- **2016년** 장애인기업 등록 /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소속 서귀포 한라공동체 운송위탁계약 체결 / CJ대한통운 CL2 정기운송계약체결 / 한살림제주 생산자연합회 소속 한울공동체 혼디드렁 공동체 운송 위탁계약 체결 /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운송 위탁계약 체결 /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시 서부보건소 영양플러스 수행업체 선정
- **2017년** 제주희망협동조합 함덕물류센터 준공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영양플러스 수행업체 선정

주식회사
정성기업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7040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7-003호

인증일
2017-05-10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전화번호
070-7747-8337

팩스
064)711-8337

㈜정성기업은 펜션 및 리조트, 기숙사 등의 린넨 및 이불 작업복을 세탁 용역 하는 업체입니다. 여성 실업자 및 장년, 노년 여성, 결혼이민자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1월 2일에 창립하였습니다. 초기 4명의 근로자로 시작하여 2017년 현재 취약계층 6명을 포함해 11명의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세제 EM을 사용하여 세탁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기업운영에 있어 참여, 공개, 투명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업윤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펜션및 리조트 등 세탁업

주요상품

· **세탁사업** : 펜션 및 리조트, 호텔, 기숙사, 수련원 등의 이불 및 작업복을 세탁합니다. 깨끗한 세탁은 물론 환경과 사용자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세제 EM를 사용합니다.

주요연혁

·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주소
닐모리동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452 오다펜션1층
우유부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동길38
우유부단 크림공작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8길7-9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7-004호

인증일
2017-09-12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지역사회공헌형

홈페이지
www.nilmori.com

전화번호
064)745-5008

팩스
064)745-6008

유한회사 섬이다

유한회사 섬이다는 '다름이 많아 빛나는 섬, 빛나는 다름이 많은 섬'을 지향하며 '닐모리동동'이라는 문화카페와 '우유부단 우유카페', '우유부단 크림공작소'를 운영 중입니다.
'닐모리동동'이란 닐모리(내일 모레)와 동동(기다리는 모습)이 결합하여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뜻하는 제주 사투리입니다. 문화카페, '닐모리동동'은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제주에 대한 설렘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유부단은 우리나라 최대 유기농 우유 생산목장인 성이시돌 우유로 만든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밀크티가 유명합니다. 인근에 테쉬폰이라는 독특한 건축물 등 관광요소와 접목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유부단 크림공작소는 이시돌 목장 유기농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 밀크티, 유기농 생크림을 이용한 음료와 제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경영컨설팅, 음식업, 기념품/식품도소매업

주요상품

- **한라봉 드레싱 계절 샐러드** : 계절별 싱싱한 채소, 한라봉, 새우, 달콤한 호두에 상큼한 한라봉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
- **제주목살 스테이크** : 열무와 사과 소스를 곁들인 제주산 돼지목살 스테이크와 뽈소라 크림리조또.
- **한라산빙수** : 성이시돌목장 유기농 우유로 만든 얼음과 수제연유, 국내산 통단밭을 사용한 눈쌓인 겨울 한라산을 닮은 닐모리동동의 대표 빙수.
- **빙떡크레페** : 제주의 흑돼지와 무, 아삭한 김치와 고소한 베샤멜소스로 만든 빙떡과 싱싱한 통로메인과 오븐에 구워진 베이컨으로 만든 시저 샐러드임. 시각을 자극하는 상큼한 오렌지에 멀젼과 토마토의 어우러짐까지. 메밀전병에 흑돼지로 속을 채워 제주 빙떡을 부드럽게 재해석한 크레페임.

주요연혁

- **2015년** 공동모금회와 어린이문화예술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피아니스트 임인건과 함께 '올댓 제주 재즈 콘서트' 진행
- **2016년** 2016제주사회적경제한마당 참여 / 우유부단 우유카페 오픈
- **2017년** 제주사회적경제 여행프로그램 '숨어있던 제주를 어뮤즈(AMU:SE)'참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사회적경제 공로자 표창 수상
  우유부단 크림공작소 카페 오픈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955-117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7-005

인증일
2017-11-16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지역사회공헌형

홈페이지
http://www.otgwima.com/
http://cafe.daum/ossgwima

전화번호
070-4233-9777

팩스
070-4233-9778

의귀마을 영농조합법인
(옷귀馬테마타운)

㈜정성기업은 펜션 및 리조트, 기숙사 등의 린넨 및 이불 작업복을 세탁 용역 하는 업체입니다. 여성 실업자 및 장년, 노년 여성, 결혼이민자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1월 2일에 창립하였습니다. 초기 4명의 근로자로 시작하여 2017년 현재 취약계층 6명을 포함해 11명의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세제 EM을 사용하여 세탁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기업운영에 있어 참여, 공개, 투명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업윤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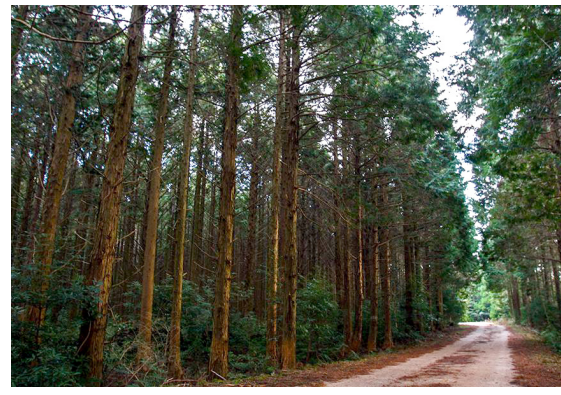
- 지역주민에게 승마에 대한 홍보강화(승마기회제공)
- 각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승마교실
- 각 초등학교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운영
- 회원제 운영->고품격 승마교육 제공
- 유소년단 운영->승마교육,각종 대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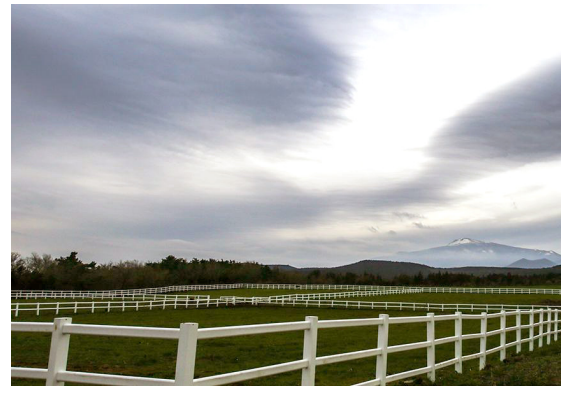
주요상품

- **일반승마** : 체험승마(10여분), 자유승마(1시간), 강습승마(1시간)외승(1~2시간)
- **회원승마** : 자유승마(10회), 강습승마(10회), 연회원(1년사용),외승(1~2시간)

주요연혁

- **2008년** 의귀마을회에서 제주마의 본향 의귀리 제막식 시행
- **2011년** 마테마 체험 조성 사업선정(기획재정부)
- **2014년** 영농조합명칭을 '의귀마을영농조합법인'으로 확정
  의귀마을영농조합법인 창립총회
  사업장 공식명칭을 '옷귀馬테마타운'으로 확정
  의귀리마을회와 위탁관리 협약서체결
  제95회 전국체전 말(馬)기승 성화 봉송
  의귀리민 대상 무료승마체험 실시
  의귀초등학교 무료승마체험 실시
- **2016년** 제1회 제주의귀 말축제
- **2017년** 제2회 제주의귀 말축제





주식회사 꿈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7040

인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7-003호

인증일
2017-05-10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전화번호
070-7747-8337

팩스
064)711-8337

귀담아 듣고 기록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평범한 우리 가족의 삶, 그들의 삶에 담긴 가족의 역사를 차곡차곡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퍼스널 라이프 스토리텔러 '꿈틀'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 자녀와 손주에게 '존재'만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부모님의 삶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어릴 적 꿈이 이었고,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이 있었으며, 애틋한 사랑을 꽃피운 추억도 있습니다. 기록을 하다가 문득 나의 모습과 비슷했던 우리 부모님의 젊은 시절 꿈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닮은 내 아이가 있습니다. 나는 다리가 되어 우리 부모님의 삶을 내 자녀와 미래의 손주들에게 남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내 자녀 또한 나의 다리가 되어 나의 '기억의책'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요상품

· '기억의책' 소개

"부모님의 삶을 담은 기억의책을 선물합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아버님 혹은 어머님)을 '꿈틀'의 전문스토리텔러가 2회에 걸쳐 직접 방문해 인터뷰하고 과거 사진들을 스캔합니다. 원고와 사진첩, 연대표, 가계도, 가족사진을 약 20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해 가족소장용 책인 하드커버 '기억의책' 5권과 e-book을 제공해 드립니다.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기억의책' 의미

"부모님과 아이들, 우리 가족을 위한 의미 있는 선물"

매년 돌아오는 가정의 달,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부모님을 위해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찾곤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특별한 60번째, 70번째 생신에는 장소를 빌려 대가족이 모이기도 하고, 미뤄뒀던 가족사진 촬영을 위해 시간을 내어 사진관으로 갑니다. 혹은 아껴둔 연차를 차곡차곡 모아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한 아이의 부모가 되고 내 아이를 위한 위인전 도서세트를 6개월 할부로 결제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할부금액을 보면서도 흐뭇해 할 수 있는 건, 내 자녀가 '남들도 다 아는' 그 위인의 삶에 대해 알게 되고 훗날 그들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위인은 바로 우리 가족의 뿌리,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이 아닐까요?

기억의책은 부모님께서 가족에게 전하는 선물입니다. 그분들이 삶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당신과 오롯이 닮아있는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꿈틀은 그 선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닮은 당신에게 물려받은 삶의 지혜, 그것이야 말로 나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주요연혁

· **2014년** 주식회사 꿈틀 설립
· **2015년**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16년/17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우수기획프로그램 선정 (제주인의 자서전)
·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더 나은 삶
더 큰 제주
제주사회적기업

Part 06

부록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관련 연혁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관련 연혁

2008

04.28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사회복지법인 마로원 길직업재활센터 사회적기업 인증
07.16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제정
10.24 유한회사 클린서비스보금자리, 사회적기업 인증
12.31 사회복지법인 일배움터, 사회적기업 인증

2009

01.07 제주발전연구원 고승한 연구위원, '제주사회적기업지원센터' 제안
'제주지역 장애인의 노동시장 구조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발표
04.18 제주발전연구원 고승한 연구위원, 사회투자재단 제안
'2009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세미나'
07.03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지원센터·육성조례 제안'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의 성장가능성 모색'주제 제23차 정책토론회
08.25 제주산정대, '2009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강/주최 노동부

2010

01.14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회적기업 심포지엄 개최
01.26 유한회사 엔젤지원사업단, 사회적기업 인증
05.26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사회적기업 인증
07.29 (사)일하는사람들, 사회적기업 인증
09.08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개최
우근민 도지사, 일자리2만개 정책 발표,
사회적기업부문에서는 100개 육성 (1000개일자리 창출) 목표
10.18 제주발전연구원 고승한 연구위원,
'제주지역의 사회적기업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라는 연구자료 발표
10.26 2010 사회적기업 제주학술대회
'지방에서의 사회적기업, 지역문제 해결책이 될수 있는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발전연구원,
진영 국회의원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관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사)제주경상학회, 제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2011

02.28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4곳 지정, 도지사 지정한 최초의 사례
〈생드르, 제주문화관광개발원,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서정,〉
06.21 '사회적경제 제주아카데미' 개최
주최 : 제주아이쿱생협, 한 살림생협, 제주자활센터협회, 제주MBC착한경제위원회,
일배움터, 제주생태관광, 일하는사람들, 보금자리, 생드르,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08.10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사회적기업 순회설명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상학회 공동 개최〉
08.26 제주특별자치도, 1社1사회적기업 결연 및 프로보노단 출범
12.02 주식회사 혼디, 사회적기업 지정(고용노동부)
12.28 사회적기업 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창립준비 실무자 워크숍

2012

01.20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상시지정제 시행
02.15 주식회사 혼디, 사회적기업 인증(제주특별자치도지정)
02.28 농식품부, 제주자색고구마영농법인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04.30 생드르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정부 사회적기업 첫 전환
05.18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개 추가 선정〈제주고향, ㈜프로보노〉
06.11 '사회적기업과 제주경제' 한국은행제주 창립기념세미나
07.10 '사회적기업 공감체험학교' 도내 초중고 10개교 대상 운영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07.27 마을기업 네트워크, 제주마을기업 협의회 발족
(제주특별자치도내 마을기업 8곳 마을로 구성)
09.04 주식회사 서정 · 사회복지법인정혜원 에코소랑, 사회적기업 인증
09.15 JDC, 사회적기업 육성 시동
09.18 '사회적기업 제품 한마당'
09.20 '제주사회적기업 학술대회'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11.02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결성
〈자활·사회적기업·제주대안연구공동체 등 22개 단체 참여〉
11.06 '지역사회의 새로운 대안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사)제주미래비전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적기업협의회, 한 살림생협〉
11.07 '2012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개최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사)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12.10 JDC 육성 사회적기업 지원대상 선정
〈성산포숙성고등어 영어조합법인, 공익숙박 위딩〉
JDC 공모 '제1회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
'안덕면 서광서리목장조합 제안사업' 선정
12.14 더불어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인증

2013

01.15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2년연속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통합지원기관으로 선정
01.25 '2013년 제주사회적기업 나눔과 소통을 통한 희망만들기' 토론회

주최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02.1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8개업체 대상 제품 모니터링 실시

04.04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2013협동조합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04.04 '어르신 취업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대한노인회제주연합회취업지원센터

04.16 최영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제주지역 협동조합 설립과 추진전략' 통해
'제주협동조합지원센터'설치 주장

04.26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립
〈김경환 (사)일하는사람들 대표, 강순원 한살림제주 대표,
이영호 유한회사클린서비스보금자리 대표 선출〉

05.27 ㈜제주생태관광, 사회적기업 인증

07.11 백년의귤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인증

.07.12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부산사회적기업연구원 업무협약

07.19 '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 교육'
주최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의소리, 주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07.25 김대유 조수리영농조합법인 대표, 제주마을기업회장 선정

07.29 제주미래비전연구원(오영훈 의원),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이해 연구총서 발간

09.09 주식회사 제이엠누리·유한회사 좋은세상· 한울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인증

09.27 '스토어36.5 제주점'개장, 사회적기업 30여제품 입점

10.04 2013 제주마 축제,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주최

10.10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회적경제 심포지엄 개최
주관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주최 서귀포시,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

10.11 '2013 제주사회적기업 박람회'개최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협의회

10.17 서귀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운영
주최 :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주관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11.06 베이비붐 세대 위한 '사회적경제 이해 아카데미'운영
주최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11.08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주살림·제주물마루된장학교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인증

11.08 '제주사회적기업페어 축제'개최(서귀포시강창학)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11.14 '2013제주사회적경제 학술대회' 개최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11.22 JDC지원 제1호 예비사회적기업 ㈜위딩, 제주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

12.17 주식회사 한라환경, 사회적기업 인증

12.23 제주최초 사회적협동조합, 하얗음 출범

2014

01.09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미나'개최
주최 : 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사회적가치연구모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01.27 '제주형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토론회'개최 / 주최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01.30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통합지원기관 선정

03.13 주식회사 푸른바이크쉐어링, 사회적기업 인증

03.28 사회적기업 제주영상문화연구원-한라일보 업무협약 체결

07.07 제주사회적경제발전포럼, '제주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생생토론회' 개최

07.23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제주지식재산센터 업무협약

05.13 '제주하늘버스 협동조합설립 공청회'
주최 :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05.22 사회경제적발전포럼, 도지사 교육감 후보에 사회적경제 육성정책 제안
-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 등으로 구성 -

06.30 사회복지법인 창암복지재단 엘린, 사회적기업 인증

07.12 제주사회적기업 지도 제작, 제주관광공사·사회적기업협의회

08.12 '제주지역협동조합 현황과 향후과제' 정책 이슈 브리프
최영근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도내 협동조합 우후죽순, 사업부실 우려

10.13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 위한 제주공청회' 개최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제주사회적경제대책위

10.16 '2014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 축제'(탑동) 주최 제주시

10.28 '제주사회적기업 박람회' (종합경기장)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11.19 농업회사법인(주)제주허브, 사회적기업 인증

11.27 '창업육성·증진 및 저변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제주대학교창업지원단

12.14 제주도,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실시

12.24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제주 프로보노'발대식

2015

01.28 제주사회적기업 활성화제주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시민단체·기업·대학 등 50여명 구성-

02.02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4개 컨소시엄구성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선정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경제문화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

03.18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인증

03.23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

03.31 소담제주 영농조합법인·주식회사 디엘에스·주식회사 대유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03.31 제주특별자치도 15개 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약
06.22 사단법인 선과 공익법률지원 협약,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도지역자활센터협회〉
07.27 주식회사 시와월드, 사회적기업 인증
08.19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아카데미'개최, 제주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개최
09.11 2015 제주사회적경제 한마당(탑동)
〈2015 제주사회적경제 비전 선언문〉 발표
▷사회적·문화적·환경적인 가치를 담은 상품과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교육 내용에 사회적경제 활동 반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제주도마을기업협의회
△제주한마음협동조합협의회△제주도자활기업협회△제주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의회
09.15 '지역을 디자인하는 해피다운 아카데미'개최
주최 :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제주도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기관
09.21 사회적기업활성화제주네트워크 창립식
09.22 농업회사법인 ㈜제주공방 · ㈜제주이어도돌봄센터, 사회적기업 인증
11.04 '2015년도 제주사회적경제 아카데미'개최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제주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12.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2020년까지 추진할 사회적경제 비전과 목표, 전략 제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 475억원, 사회적경제비지니스 고도화사업
721억원 투입 등 내용 담겨
12.17 2015제주사회적경제 포럼 및 송년의밤 개최

2016

01.04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자생력 강화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단계적 축소 발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율 축소, 사업개발비 자부담 확대, 철저한 사후관리 등 개정해 시행〉
01.13 '사회적기업활성화 제주네트워크리더포럼' 개최
02.02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선정
〈컨소시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 서귀포시사회적경제복지센터
02.29 ㈜해피맘하우스, 사회적기업 인증
03.07 강경식, 홍경희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
04.04 사회적경제기업 6차산업화 연계 협약
〈제주발전연구원 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06.03 해피맘하우스, 오제이주식회사,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제주시 우수사회적기업 선정
06.09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06.29 사회적기업활성화제주네트워크, '사회적기업의날 기념 공동기자회견'
07.25 사회적경제 인문학 융복합 토크쇼 '톡talk톡 드로잉 파티'개최/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07.29 2016 제주사회적경제 한마당 29일~30일(칠성로일대)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포럼', 제주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개최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제주사회적경제위원회·제주사회적경제한마당조직위원회
08.10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6제주사회적경제비즈니스 스쿨
'사회적기업 경영매니저 양성교육' 실시
10.05 '사회적기업 행정업무 인력양성을 위한 비즈니스 스쿨'개최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노사발전재단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0.07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개최 (렛츠런파크 : 7일~9일까지)
10.10 이상봉, 고충홍 도의원, '사회적가치 증진위한 공공조달 조례'발의
11.13 'Talk to SE, 사회적경제를 말하다'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12.27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사회적기업 인증

2017

02.19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종합평가 항목에 '사회적기업제품구매' 도입
03.29 제2기 제주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
〈사회적경제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 조정, 사회적경제정책 제도 제·개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점검 및 평가·조정 등 역할〉
03.30 제주형 일자리창출위원회 출범 〈민간·공공·사회적 일자리 집중 발굴 가동 역할〉
04.17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위탁운영
05.10 영농조합법인 제주다·제주희망협동조합·주식회사 정성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05.22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위원회 사회적일자리분과 등 운영
06.17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숨어있던 제주를 AMU:SE' 프로그램 개최
09.09 2017사회적경제한마당 개최(원도심일대서 진행)
09.12 유한회사 섬이다, 사회적기업 인증
11.16 의귀마을영농조합법인·주식회사 꿈틀 사회적기업 인증

제주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사례집

더 나은 삶 더 큰 제주
제주사회적기업

발행일	2017년 12월
기획·발행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전화	064)726-4843
팩스	064)755-4843
홈페이지	http://www.jejusen.org

취재·촬영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팀
	이길훈 김정민 강나루 변수연 이민지
사진협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협의회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편집·디자인	(주)디자인누리 702-3572